영국정부 주도의 성공적인 추모기념행사 사례조사 및 시민의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현충시설의 보존관리 정책 연구

(개인훈련)

2018년 2월

국가보훈처

김 영 천

<목차>

<제목> ····· 1

<목차> ····· 2

<국외훈련 개요> ····· 6

<훈련기관 개요> ····· 7

<연구결과 보고서> ····· 8

I. 서론 ····· 15

1. 연구배경 ····· 15
2. 연구범위 ····· 17
3. 연구방법 ····· 17

II. 영국개관 ····· 18

1. 영국에 대하여 ····· 18
2. 영국인들의 국민성에 대하여 ····· 22

III. 영국의 전쟁사 ····· 24

1. 백년전쟁 ····· 25
2. 장미전쟁 ····· 27
3. 미국의 독립전쟁 ····· 28
4. 트라팔가해전 ····· 29
5. 제1차 세계대전 ····· 30

가. 개요 ····· 30

나. 갈리폴리 전역 ····· 33

다. 루스 전투 ····· 34

라. 유틀란트 해전 ····· 35

6. 제2차 세계대전 ····· 36
가. 개요 ····· 36
나. 덩케르크 전투 ····· 38
7. 포클랜드 전쟁 ····· 39

III. 영국의 추모행사 ····· 41
1. 정부 주도의 추모행사 ····· 41
가. 재향군인의 날 ····· 41
나. 현충일(Remembrance Day) ····· 43
2. 민간 주도의 추모행사 ····· 46
가. 영국 재향군인회 ····· 46
나. 영국 군인가족부조회 ····· 47
다. 영국 지체절단 상이군이회 ····· 48
라. 대영전쟁미망인회 ····· 50
마. 물망회 ····· 50
바. 제대군인 정신건강 자선회 ····· 51
사. 군인 자선단체 ····· 52
아. 왕립 군인회 ····· 53
자. 왕립 알프레드 해군회 ····· 54
차. 영국한국전참전용사협회 ····· 55

V. 영국인의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현충시설 ····· 56
1. 제국 전쟁박물관 ····· 57
가. 런던 전쟁박물관 ····· 57
나. 맨체스터 전쟁박물관 ····· 59
다. 덕스포드 전쟁박물관 ····· 60
라. 처칠의 전쟁박물관 ····· 61
마. 벨파스트호 전쟁박물관 ····· 62

2. 전영추모수목원 ····· 63
3. 트라팔가 광장 ····· 66
4. 템즈 강변과 Victoria Embankment Garden ····· 69
가. 템즈 강변 ····· 69
나. Victoria Embankment Garden ····· 70
5. 일포드 공원 폴란드 마을 ····· 71
6. 세노타프 ····· 73
7. 무명용사 묘지 ····· 74
8. 영연방전쟁묘지위원회(CWGC) ····· 77
가. 역사 ····· 77
나. 조직 및 예산 ····· 79
다. CWGC의 묘지관리 원칙 ····· 80

VI. 우리나라의 추모행사 ····· 82
1. 3·1절 ····· 82
2. 광복절 ····· 83
3. 3·15의거 기념일 ····· 84
4. 서해수호의 날 ····· 85
5.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 86
6. 4·19혁명 기념일 ····· 87
7. 5·18민주화 운동 기념일 ····· 88
8. 현충일 ····· 90
9. 6·10민주항쟁 기념일 ····· 91
10. 6·25전쟁일 ····· 92
11. 재향군인의 날 ····· 93
12. 순국선열의 날 ····· 94

VII. 우리나라의 현충시설 ····· 96
1. 독립운동관련 현충시설 ····· 96
가. 백범김구기념관 ····· 96
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97
다. 안중근의사기념관 ····· 98
라. 독립기념관 ····· 99
2. 국가수호관련 현충시설 ····· 100
가. 전쟁기념관 ····· 100
나.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 101
다.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 102
라. 인천상륙작전기념관 ····· 103
3. 국립묘지 ····· 105
가. 국립서울현충원 ····· 105
나. 국립대전현충원 ····· 106
다. 국립 4·19민주묘지 ····· 107
라. 국립 3·15민주묘지 ····· 108
마. 국립 5·18민주묘지 ····· 108
바. 국립호국원 ····· 109

VIII. 정책제언 및 마무리 ····· 110
1. 정책제언 ····· 110
2. 마무리 ····· 112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 113

해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영국

2. 훈련기관명

- SOAS 런던대학교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3. 훈련분야

- 국외단기 개인훈련

4. 훈련기간

- 2017. 8. 21. ~ 2018. 2. 9.

훈련기관 개요

명 칭	SOAS(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훈련기관 성 격	대학
소 재 지 (홈페이지)	Thornhaugh Street, Russell Square, London, WC1H 0XG ※ 홈페이지 주소 : www.soas.ac.uk		
연 혁	• 1916년 School of Oriental Studies로 설립 • 1938년 현 명칭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로 변경 • 1941년 현 위치 Russell Square로 이전 • 1973년 세계적인 건축가 데니스 라스던 경이 설계 및 건축한 도서관 확장 개관 • 2016년 개교 100주년		
조 직	• 3개의 주요학부로 구성 (Faculty of Art and Humanities, Faculty of Language and Culture, Faculty of Law and Social Sciences)		
주요교수	• Professor Charlotte Horlyck(SOAS내 한국학연구소 소장)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훈련자	김 영 천	직급	행정8급
소속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생활안정과		
훈련국	영국	훈련기간	2017. 8. 21. ~ 2018. 2. 9.
훈련기관	SOAS 런던대학교	훈련구분	단기
훈련목적	영국정부 주도의 성공적인 추모기념행사 사례조사 및 시민의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현충시설의 보존관리 정책 연구	보고서매수	
내용요약	보훈(報勳)의 사전적 의미는 “공훈에 보답함”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가보훈기본법을 통해 보훈의 기념이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영국의 보훈이념은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국이 필요로 할 때 전장에 나가 싸우던 중의 희생은 존엄한 가치		

	로 영구히 존중하여야 하고, 직업 활동 중의 재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보상하며, 전·사상자와 그 유족이 국가를 필요로 하는 한 최대한 보살피는 범정부적·범사회적 지원 체계를 유지 하는 것"으로 정리 할 수 있다. 비단 우리나라나 영국뿐만 아니라 보훈의 의미는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예우. -> 그러한 보상과 예우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 -> 나라가 위기를 겪을 경우 일반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은 강화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보훈정책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선순환 구성 요소 중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될까? 혹자는 이런 물음을 던질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가 어려움에 빠지면 국민으로서 당연히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다면 희생하고 헌신한 국민에 대한 보상 및 예우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오늘날까지 경제성장,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보훈대상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시 여기면서, 그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소홀히 해왔다. 대통령께서는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잘살고 존경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보훈정책의 개선을 통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는 선진국인 영국의 보훈정책, 그 중에서도 추모행사 및 현충시설 관리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보훈대상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은 보훈대상자들을 예우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섬나라인 영국은 대륙국가에 비해 공격이 용이하지 않아 많은 침략을 받지는 않았다. 대신 영국은 오히려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여 15세기 대항해시대를 통해 유럽 밖의 많은 식민지들을 거느린 대영 제국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대영제국”의 추억으로 영국인들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영국인들이 대체로 옛것을 그리워하는지도 모르겠다. 최근에는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마저 국민

	투표를 통해 통과시켰다. 브렉시트 통과에는 EU이민자들로 인한 자국민의 실업률 증가, 이민자들에 의한 범죄율 증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예전의 가치를 지키려는 목적도 큰 이유를 차지했다고 본다. 하지만 영국인들의 이러한 보수적인 성향은 보훈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큰 강점이다. 본인들의 조상들이 추구했던 가치에 대해 지키려는 문화는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고,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수많은 자선단체 활동, 그들을 위한 기부 문화 등 아직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기념비와 동상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설들에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영국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느끼면서 이를 통해 영국이란 나라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추모나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영국에서는 민간 보훈단체들이 주관하여 매달 여러 가지 자선 이벤트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보훈대상자들의 희생을 잊지 않도록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한 윈스턴 처칠의 말을 영국인들은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청교도 사상 등의 영향으로 유흥문화 보다는 가족친화적인 문화가 발달한 영국에서 지역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공원은 어쩌면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자주 찾는 공원이나 그 근처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추모하고 기리는 현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현충시설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점이 아직까지 영국을 강대국으로 이끌고 있는 힘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영국의 이러한 이러한 보훈문화를 보고 느끼면서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영국의 현충시설은 제1,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것들이며, 기념행사도 마찬가지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저항한 애국투사, 나라를 지킨 호국영웅, 불의에 항거한 민주화 투사 등 다양한 영역의 기념행사 및 현충시설들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양한 보훈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때로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도 하는 등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첫 번째 정책 제언은 각 보훈단체들의 통합단체 설립이다. 처음에는 정부주도로 통합단체를 설립하여, 이후 안정화가 되면 통합단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통합단체라고 해서 모든 단체를 폐지하고 하나의 단체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들의 대표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모으고 갈들을 조정할 수 있는 일종의 갈등 조정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갈등은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더군다나 모든 보훈단체들이 국가를 위해 사회를 위해 희생한 분들인데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은 일반 시민들의 눈에도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단체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법정 기념일 등에 열리는 중앙정부 행사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리는 행사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추모나 기념행사의 참된 의미는 관이 주도하여 질서 있게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 스스로 그날의 행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하는 성찰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다. 처음에 민간으로 이양하면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걱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시민의식 또한 많이 높아졌으므로, 행사에 필요한 예산 등을 적절하게 지원한다면, 민간에서는 훨씬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다양

	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계층들까지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이나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면 광화문광장처럼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에 현충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원이나 광장을 만들 때 의무적으로 그곳을 대표할 수 있는 동상이나 기념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난다고 당연히 애국심이 높아지고 호국정신이 함양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는 곳에서 할 일이다. 물론 단기간 내에 우리가 영국과 같은 보훈문화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추모나 기념은 일상생활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속담 중에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보상, 감사의 마음, 즉 “따뜻한 보훈”은 좀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1. 연구배경

보훈(報勳)의 사전적 의미는 “공훈에 보답함”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가보훈기본법을 통해 보훈의 기념이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영국의 보훈이념은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국이 필요로 할 때 전장에 나가 싸우던 중의 희생은 존엄한 가치로 영구히 존중하여야 하고, 직업활동 중의 재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보상하며, 전·사상자와 그 유족이 국가를 필요로 하는 한 최대한 보살피는 범정부적·범사회적 지원체계를 유지 하는 것”으로 정리 할 수 있다.

비단 우리나라나 영국뿐만 아니라 보훈의 의미는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예우. -> 그러한 보상과 예우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 -> 나라가 위기를 겪을 경우 일반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은 강화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보훈정책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선순환 구성 요소 중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될까?

혹자는 이런 물음을 던질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가 어려움에 빠지면 국민으로서 당연히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다면 희생하고 헌신한 국민에 대한 보상 및 예우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오늘날까지 경제성장,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아래 보훈대상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시 여기면서, 그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소홀히 해왔다. 대통령께서는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잘살고 존경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보훈정책의 개선을 통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는 선진국인 영국의 보훈정책, 그 중에서도 추모행사 및 현충시설 관리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보훈대상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은 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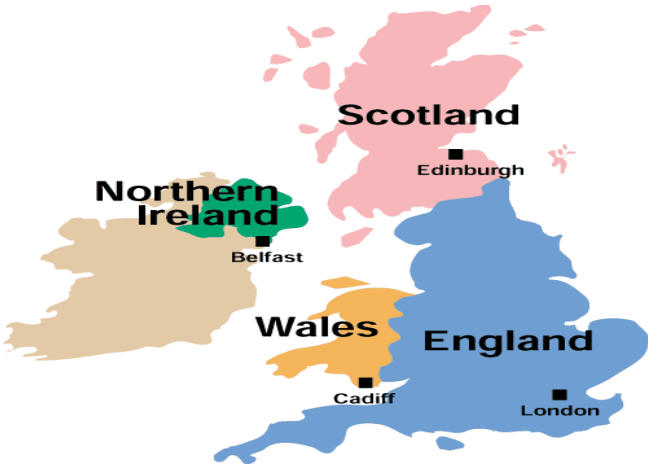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는 영국의 보훈정책 중 추모행사 및 현충시설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추모행사 및 현충시설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하기위해 영국이란 나라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민족성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또한 그들의 전쟁사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왜 그들이 추모행사를 하고 어떠한 현충시설을 관리하는지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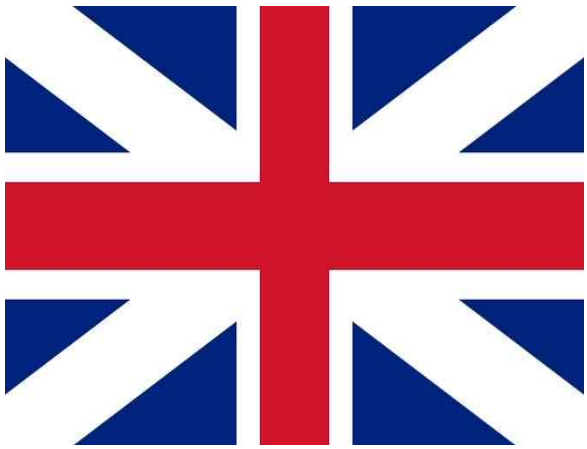
3. 연구방법

본 보고서의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주제와 관련된 행사에 참석하거나, 현충시설들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연구의 세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영국의 보훈정책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역사, 지역, 문화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관련된 서적이나 문헌들을 많이 참고하였다.

II. 영국개관

1. 영국에 대하여





영국의 공식 국가 명칭은 '대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이다. 영국의 옛 표현으로 알비온Albion과 브리타니아Britannia가 있다. 알비온은 잉글랜드를 시적 혹은 수사적으로 표현할 때 쓰던 말이다. 이 말은 원래 로마인이 처음 쓰기 시작한 말이다. '흰색'을 의미하는 라틴어 '알부스'albus에서 나온 것으로, 처음 로마인이 유럽본토에서 바다를 건너 영국으로 올 때 바라다 보이는 남쪽 해안의 흰색 절벽을 보고 표한한 말이다. 브리타니아는 로마인이 지배했던 남쪽 지방(지금의 잉글랜드 지역)을 칭했던 말이다. 또 이 말은 영국을 상징하는 여인을 칭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영국은 가장 큰섬인 그레이트 브리튼 섬, 아일랜드 섬, 그리고 900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레이트 브리튼 섬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세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여기에 아일랜드 섬의 북부 지역이 포함되어 한 국가를 이룬다. 본래 네 나라로 나뉘어 있던 이 지역

들은 잉글랜드의 주도하에 수세기 동안의 통합 과정을 거쳐 한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 전체 국토 면적은 240,842㎢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볼 때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다.

인구는 2011년 인구조사 기준 약 6,217만(2016년 기준 6,564만명) 명으로, 5,301만 명을 넘어서는 잉글랜드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스코틀랜드가 530만 명을 조금 넘고, 웨일스가 306만 명 가량, 그리고 북 아일랜드가 180만 명 정도이다. 이들 인구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원전부터 브리튼 섬에 정착한 민족들을 열거해 보면, 이미 기원전 8000~2000년 사이 신석기 시대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건너온 이베리아인을 시작으로, 기원전 800~200년 사이 유럽 본토로부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이동해 온 켈트족, 기원전 55년부터 브리튼섬을 원정하여 기원후 43년부터 410년까지 잉글랜드를 지배한 라틴족, 5~6세기부터 침입한 게르만의 앵글족, 주트족, 색슨족, 8~9세기의 데인족, 노르웨이인, 11세기 중반에 최후로 침입해온 노르만인, 그리고 1453년까지 노르만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들어온 프랑스인을 들 수 있다.

중세 이후 영국은 농업, 금융업, 상업, 기술 계통의 이민을 상당수 받아들여 그들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 영구 정착을 장려하는 개방 정책을 취했다. 16세기부터 영국은 대양으로 진출하여 식민 활동을 통해 자국민들을 해외의 많은 지역으로 보내기도 했고, 대영제국 지배하에 있는 지역에서 많은 백인과 유색 인종들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19세기 이후에도 이민은 계속되었다. 19세기에 영국으로 온 이민은 아일랜드인이 주류를 이루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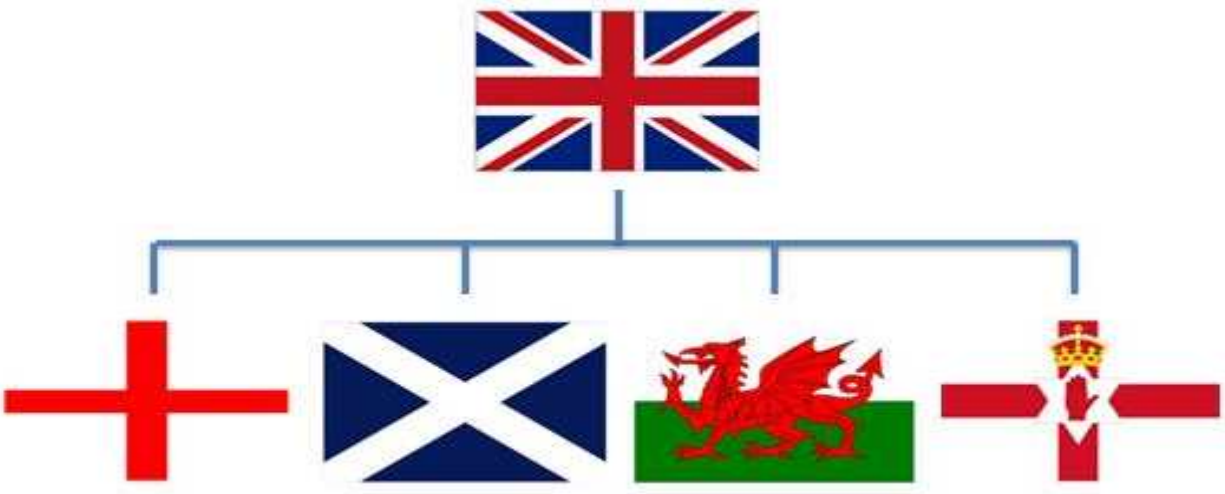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유대인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20세기 중반은 서인도제도 출신과 남아시아인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 영국 인구의 두드러진 변화는 과거 식민지였던, 제3세계에서 온 이민의 증가이다. 1940년대 후반부터 저임금 직종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신생 영연방 국가들로부터 상당수의 이민을 받아들였다.

노르만의 최후의 정복(1066) 이후 영국은 잉글랜드의 주도하에 수백 년에 걸친 정복과 항쟁 끝에 한 국가로 통합되었다. 네 나라가 한 국가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각 지역의 국민들 사이에는 이질적인 요소가 많다. 우선 민족적으로 아일랜드인, 웨일스인, 그리고 스코틀랜드 고지대인은 켈트족이다. 반면 잉글랜드인과 스코틀랜드 저지대인은 주로 게르만족 혈통이다. 이러한 차이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도 드러난다. 켈트 지역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인 게일인이 썼던 켈트족 언어인 게일어를 쓴다. 아일랜드인은 아일랜드 게일어, 스코틀랜드인은 스코틀랜드 게일어, 그리고 웨일스인은 웨일스어를 쓴다. 잉글랜드 지역 사람들은 게르만 방언들을 썼는데 그중 하나가 근대 영어로 발전했다. 또한 각 지역은 서로 다른 경제적, 사회적, 사법적 제도들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은 잉글랜드의 문화가 영국인의 생활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네 나라의 정치 제도도 잉글랜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고, 주요 언어 또한 영어이다. 일상생활도 대부분 잉글랜드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지역들은 잉글랜드의 문화에 점차 동화되어 독자적인 것들을 많이 잃었지만, 아직도 그들 고유의 것들을 많이 고수하

고 있다. 무엇보다도 잉글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출신의 국민들 상당수는 과거 잉글랜드가 주로 군사적, 경제적 압력을 통해 강제적으로 통합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아직도 잉글랜드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민족의식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경우는 영국이 종주국이기도한 축구경기를 통해서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각각의 축구협회를 운영하고 있어 월드컵 등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 할 경우 각각 출전이 가능하다. 영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의 국민이지만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간의 국가대표로 축구경기를 할 경우에는 마치 다른 나라의 선수들과 경기하는 것처럼 격렬하고, 팬들 또한 축구장에서는 영국인이 아닌 잉글랜드인, 스코틀랜드인이 되어 때론 서로 간에 폭력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잉글랜드 국기 스코틀랜드 국기 웨일즈 국기 북아일랜드 국기

2. 영국인들의 국민성에 대하여

현재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Brexit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영국. 이에 따라 영국의 통화인 파운드(£)의 가치가 급락하는 등 사회전반에 혼란이 일어났던 영국. 하지만 내가 영국에서 머물던 시기엔 파운드화도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다. 물론 나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었지만 말이다. 몇 개월 살아보지 않았지만 내 주관적인 눈과 판단으로 왜 이들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려고 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학교로 향하는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집들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런던에 있는 집들은 보통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재건축만 적어도 3번을 했을 세월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필요한 부분만 수선하고 사는 것이다.

보통의 영국 집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 매우 불편하다. 목조바닥으로 인해 윗층의 소음이 그대로 전달되고, 좁은 화장실, 카페트로 인해 청소를 해도 깨끗해 보이지 않는 점, 그러면서 집값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이 바로 런던의 주거 현실이다. 하지만 영국인들은 그런 주거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단지 불편한 곳을 부분수선 하면서 역사를 간직하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주거문화 하나만 봐도 영국인들의 보수적인 성향을 알 수 있다.

영국인들의 이러한 보수적인 성향은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영국은 축구 종주국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영국은 국제대회에서 이렇다 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현대축구의 빠른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평이 많다.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대영제국”이었던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영국의 음식도 변화가 없다. 영국의 대표적인 음식은 “피쉬앤칩스”다. 이 요리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생선가스와 감자튀김인데, 그렇게 번영했던 그리고 아직도 문화 선진국인 영국의 대표음식이 튀김요리인 피쉬앤칩스 하나라고 하니 이해가 쉽지 않다.

이러한 보수적인 성향으로 인해 영국의 브렉시트는 오히려 당연해 보인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EU의 여러 국가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에 의해 침해당한다고 생각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EU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EU 이후의 세대인 현재의 젊은 영국인들보다 과거의 영광을 함께하거나 가까이에서 그것에 대해 들었던 장년 세대들의 브렉시트 찬성률이 높았던 것은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영국인들의 이러한 보수적인 성향은 보훈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큰 강점이다. 본인들의 조상들이 추구했던 가치에 대해 지키려는 문화는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고,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수많은 자선단체 활동, 그들을 위한 기부 문화 등 아직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III. 영국의 전쟁사

섬나라인 영국은 대륙국가에 비해 공격이 용이하지 않아 많은 침략을 받지는 않았다. 대신 영국은 오히려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여 15세기 대항해시대를 통해 유럽 밖의 많은 식민지들을 거느린 대영 제국을 건설하였다. 대영제국은 1921년 당시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4억 5천8백만 명 이상의 인구와 지구 육지 면적 1/4에 해당하는 대략 35,500,000Km^2의 영토를 차지했다. 그 결과, 영국은 가장 거대한 식민지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영토(식민지 포함)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영국령 식민지의 규모에 기인하여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라는 말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많은 영토가 독립해 나갔으며, 현재는 영국 본토인 그레이트브리튼 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독립하여 영국 연방의 형태로 남아있다.

나는 영국의 전쟁사를 통해 전쟁으로 희생된 선조들에 대해 현재를 살아가는 영국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기리고 추모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백년전쟁

백년전쟁

잔다르크

백년 전쟁은 1337년에서 1453년 사이에 잉글랜드 왕국의 플랜태저넷 가와 프랑스 왕국의 발루아 가 사이에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 일어난 일련의 분쟁들을 총체적으로 이르는 이름이다. 백년전쟁은 프랑스의 잔다르크가 활약했던 전쟁이기도 하다. 중세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중 하나로, 서유럽에서 가장 넓은 땅의 왕위를 두고 두 왕조가 5대 124년에 걸쳐 싸운 장대한 전쟁이다. 기사의 최고 전성기이자 동시에 기사계급의 쇠퇴가 시작된 시기이며, 잉글랜드와 프랑스 양국 모두 전쟁으로 인해 강고한 국민정체성이 싹트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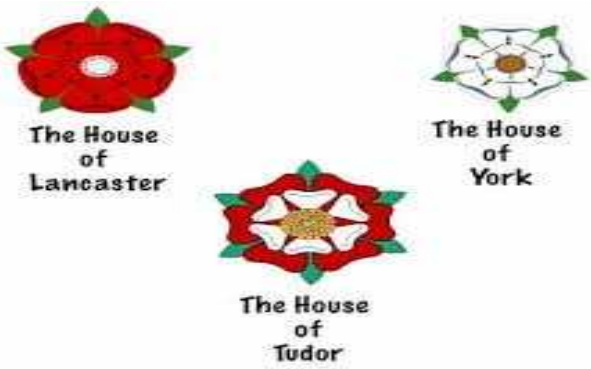
1066년 노르만인의 잉글랜드 정복 이래로 잉글랜드 국왕은 프랑스 땅에 보유한 영지에 대하여 프랑스 국왕의 명목상 제후였다. 프랑스의 역대 국왕들은 수 백년에 걸쳐 잉글랜드 국왕의 영지를 빼앗아 왔으며, 백년전쟁 당시 즈음에는 잉글랜드 국왕이 실효 지배하던 땅은 가스코뉴 정도밖에 없었다. 프랑스 입장에서 이 땅을 흡수하여 잉글랜드 세력을 유럽 대륙에서 완전히 축출하려 시도하는 것은 곧 잉글랜드의 국력을 시험해 보는 것

이었고, 잉글랜드가 프랑스의 동맹국 스코틀랜드와 전쟁 중일 때면 언제나 그 시도를 실행으로 옮기려 했다.

잉글랜드 국왕 에드워드 3세의 어머니는 프랑스 국왕 필리프 4세의 딸 이사벨라로,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 카페 본가의 마지막 왕인 샤를 4세와 숙질관계였다. 1316년 프랑스에 살리카법이 도입되면서 여성의 왕위 계승이 금지되었다. 1328년 샤를 4세가 죽자 여성으로서 프랑스 왕위를 요구할 수 없게 된 이사벨라는 대신 자기 아들 에드워드의 왕위 계승을 주장했다. 프랑스 측에서는 이사벨라가 자신에게 애초에 주어지지 않은 왕위계승권을 그 아들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근거로 그 주장을 무시했다. 이후 9년간(1328년-1337년) 잉글랜드 왕가는 카페 가의 방계인 발루아 가가 프랑스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용인했다. 그러나 발루아 가의 초대 왕 필리프 6세가 에드워드 3세와 스코틀랜드의 데이비드 2세 사이의 전쟁에 개입하면서 에드워드 3세는 다시 프랑스 왕위를 요구하게 되었고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후 잉글랜드는 크레시, 푸아티에, 아쟁쿠르 등지에서 연전연승하며 전쟁에서 이기는 듯 했다. 그러나 프랑스 국왕이 동원할 수 있는 국력 자체가 잉글랜드를 능가했기에 잉글랜드는 프랑스를 완전히 정복할 수 없었다. 프랑스는 1429년부터 반격을 시작해 오를레앙, 파타이, 포흐미늬, 카스티용에서 결정적 승리들을 거두면서 전쟁은 프랑스의 우세로 끝났고 잉글랜드 왕가는 유럽 대륙의 영지 대부분을 영구히 상실했다.

2. 장미전쟁

장미전쟁



장미전쟁의 결과

장미 전쟁 (영어: Wars of the Roses)은 붉은 장미를 표시로 삼은 랭커스터 왕가와 흰 장미를 표시로 삼은 요크 왕가 사이에 1455년부터 1485년까지 벌어진 왕위 쟁탈전이었다.

요크 공작 리처드는 헨리 6세의 발병을 틈타 1453년 호민관 겸 방위관이 되어 랭커스터가의 중심세력인 서머셋 공작과 싸워, 장미전쟁을 일으켜 그을 멸하였다. 1460년에 리처드는 왕위를 요구하여 헨리 6세의 사후 왕위 계승이 승인되었으나, 랭커스터파의 반대로 리처드는 전사하였다. 리처드의 아들 에드워드는 1461년 랭커스터가를 격파하고 왕위를 획득하여 에드워드 4세가 되었다. 이윽고 요크가 내부에 불화가 일어나, 1483년 에드워드 4세의 사후, 에드워드 5세와 그 동생이 에드워드 4세의 적자가 아니라는 명분으로 에드워드 4세의 동생 글로스터 공 리처드가 리처드 3세로서 즉위하였다.

이에 어머니 계통으로 왕실에 연결된 랭커스터가의 유일한 왕위 요구자

인 헨리 튜더가 1485년 망명지인 프랑스로에서 귀국하여 1485년 보스워스 전투에서 리처드 3세를 격파하고 헨리 7세로 즉위하였다. 이로써 장미 전쟁은 끝나고 튜더 왕조가 열리게 되었다.

이 전투의 과정에서 많은 제후와 기사가 몰락하고 튜더 왕조 헨리 7세에 의해 영국 절대주의가 시작되었다. 장미전쟁의 구귀족 중에서도 왕권에 대하여 반항적인 부분이 거의 모두 괴멸해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헨리 7세의 국가 재건사업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3. 미국의 독립전쟁

1)벙커힐전투

독립선언서 서명

미국 독립 전쟁(American War of Independence, 1775년 ~ 1783년)은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 중에서 동부 해안 13개주가 영국의 조세정책 등에 반발하여 식민지 독립을 위해 일으킨 전쟁이다. 미국은 1776년에 13주가 있는 상태에서 건국했다고 보며, 이 전쟁은 프랑스 혁명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1) 벙커 힐 전투(Battle of Bunker Hill)는 미국 독립 전쟁 초기 1775년 6월 17일에 일어난 대륙군과 영국군의 전투이다.

4. 트라팔가 해전

트라팔가 해전

넬슨 제독

트라팔가 해전(Battle of Trafalgar)은 나폴레옹 전쟁[2]기간 중 1805년 10월 21일에 프랑스-스페인 연합함대를 상대로 영국해군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전투이다. 스페인 남서 해안 트라팔가르 곶 에서 영국의 왕립해군 27척이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 33척을 기습하였다. 그 결과 프랑스-스페인 연합함대는 22척을 잃었지만, 영국은 1척도 잃지 않았다.

영국해군을 대승으로 이끈 제독 허레이쇼 넬슨은 전투 중 전사했지만, 그는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영국의 위대한 해전영웅으로 길이 기억되고 있다.

19세기 중요한 전투 중 하나인 이 해전은 제3차 대 프랑스 동맹 때 벌어졌다. 영국의 극적인 승리로 18세기부터 이어져온 영국의 제해권을 굳혔다. 이 전투 후 나폴레옹은 영국 침공을 단념하고, 영국의 동맹국 프로이센을 공격했다.

---

2) 나폴레옹 전쟁(프랑스어: Guerres napoléoniennes, The Napoleonic Wars)은 1803년부터 1815년까지 변화한 유럽의 동맹과 대립한 연합을 상대로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국이 벌인 일련의 분쟁을 포함한 전쟁을 말한다.

5. 제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당시 정세

전쟁 종료 후 런던

가. 개요

제1차 세계 대전 (World War I, WWI 또는 WW1)은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일어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 대전이다. 미국에서는 처음에 유럽 전쟁(European War)라고 불렸다. 제1차 세계 대전으로 병사 900만명 이상이 사망했다. 기술 및 산업의 고도화와 전술적 교착 상태로 인해 사상자 비율이 악화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은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전쟁 중 하나이며, 참전국의 수많은 혁명 등을 포함하여 주요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 전쟁은 전 세계의 경제를 두 편으로 나누는 거대한 강대국들의 동맹끼리의 충돌이다. 한쪽 편은 대영제국, 프랑스, 러시아 제국의 삼국 협상을 기반으로 한 연합국이며, 다른 한편은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있는 동맹국이다. 이탈리아 왕국은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함께 삼국 동맹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동맹국에 참여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협상국의 일원으로 참가하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침공했다.

이러한 동맹은 재조직되었고 더 많은 국가가 전쟁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확장되었다. 이탈리아 왕국, 일본 제국, 미국이 연합국에 가입했으며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 왕국이 동맹국에 가담했다. 궁극적으로 6천만명의 유럽인을 포함한 7천만명의 군인이 전쟁에 가담하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전쟁 중 하나에 동원되었다.

이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신제국주의때문이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왕위 후계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세르비아 국민주의자 가브릴로 프린치프에게 암살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 왕국에게 최후 통첩을 내리면서 7월 위기가 시작되었고, 지난 수십년에 걸쳐 형성된 국제적 동맹끼리 서로 연결되었다. 수주 이내에 강대국끼리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분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7월 28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를 침공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리면서 독일군은 중립국인 룩셈부르크와 벨기에를 침공하면서 프랑스로 진격했고, 이로 인해 영국이 독일에게 선전포고했다. 파리 앞에서 독일군의 진격이 멈춘 이후, 서부 전선은 1917년까지 참호전과 같은 소모전 양상으로 굳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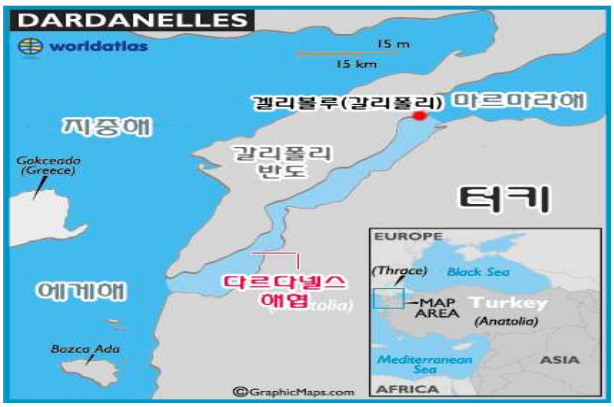
한편, 동부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내로 진격하는데는 성공했지만 동프로이센 침공은 독일군의 반격으로 실패하게 된다. 1914년 11월에는 오스만 제국이 참전하면서 전역이 코카서스, 메소포타미

아, 시나이 반도 등으로 확대되게 된다. 이탈리아와 불가리아는 1915년 참전했고, 루마니아 왕국은 1916년 참전했으며, 미국은 1917년 참전했다.

러시아 정부가 1917년 3월 붕괴된 이후 동부 전선이 해소되었으며 이후 10월 혁명으로 인해 동맹국이 러시아의 영토를 획득했다. 1918년 11월 4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휴전에 합의했다. 1918년 서부 전선에서 독일군의 춘계 공세 이후, 연합군은 일련의 공세를 방어하고 이후 진격하여 독일군의 참호들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독일 11월 혁명 이후, 독일이 1918년 11월 11일 휴전에 합의하면서 연합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전쟁이 끝나면서,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러시아 제국, 오스만 제국 등 4개 주요 제국이 해체되게 되었다. 앞의 2개 제국은 승계국가가 탄생했지만 많은 영토를 잃었으며, 후자의 2개 제국은 완전히 해체하게 되었다. 유럽 및 서남아시아의 지도는 새로운 독립 국가가 생기면서 새롭게 그려지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 연맹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목표는 유럽의 민족주의의 부활과 독일에서 파시즘의 장악으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며 실패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하게 되었다.

나. 갈리폴리 3)전역(戰役)



갈리폴리 지역

연합군의 갈리폴리 상륙

갈리폴리 전역 또는 다르다넬스 전역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오스만 제국 다르다넬스 해협의 겔리볼루 반도(갈리폴리 반도)에서 벌인 일련의 상륙 전투이다.

연합군은 1915년 2월 19일과 2월 25일, 3월 25일에 각각 다르다넬스 해협의 터키군 포대를 포격했으나 터키군의 반격과 기뢰 등으로 인해 3척의 함대가 격침되고, 3척이 대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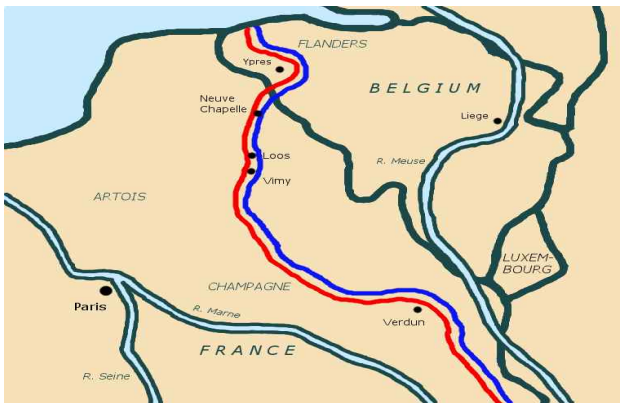
이로 인해 총책임자 윈스턴 처칠이 총관직에서 물러나고 영국 해군의 피셔 제독도 사임했다. 이에 연합군은 새로 임명된 영국의 I. 해밀턴 장군의 지휘 아래에 4월 25일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주축으로 한 영연방 및 프랑스군 7만 명을 갈리폴리에 상륙시켰다.

하지만 독일 제국의 오토 리만 폰 산더스 장군이 이끄는 독일군과 무스

3) 전역(戰役)은 '전쟁이 벌어지는 지리상의 구역'을 줄여 이르는 말. 영어로는 'Campaign'을 사용한다. 전쟁과 유의어이다.

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휘하 터키군의 공격으로 실패했다. 또 터키군의 병력을 잘못 파악하여 오스트레일리아 병사가 8,587명이나 전사하고 1만 9367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연합군 총사상자는 25만 명에 달했으며 터키군도 21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 결국 상륙 작전의 실패로 연합군은 6개월 뒤에 갈리폴리에서 철수했다.

다. 루스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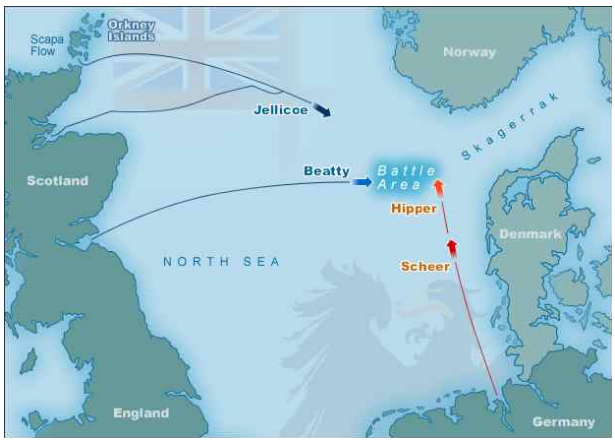
프랑스의 서부전선 루스 지역

독가스를 이용해 공격하는 영국군

루스 전투(Battle of Loos, 1915년 9월 25일 ~ 1915년 10월 8일)는 프랑스의 서부전선에서 1915년 9월 25일 영국군이 최초로 독가스를 이용해 독일군을 타격한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영국군은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하였고, 총 사상자 수는 5만 명이며 그중 16,0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알려져 있다.

라. 유틀란트 해전



유틀란트 해전 발생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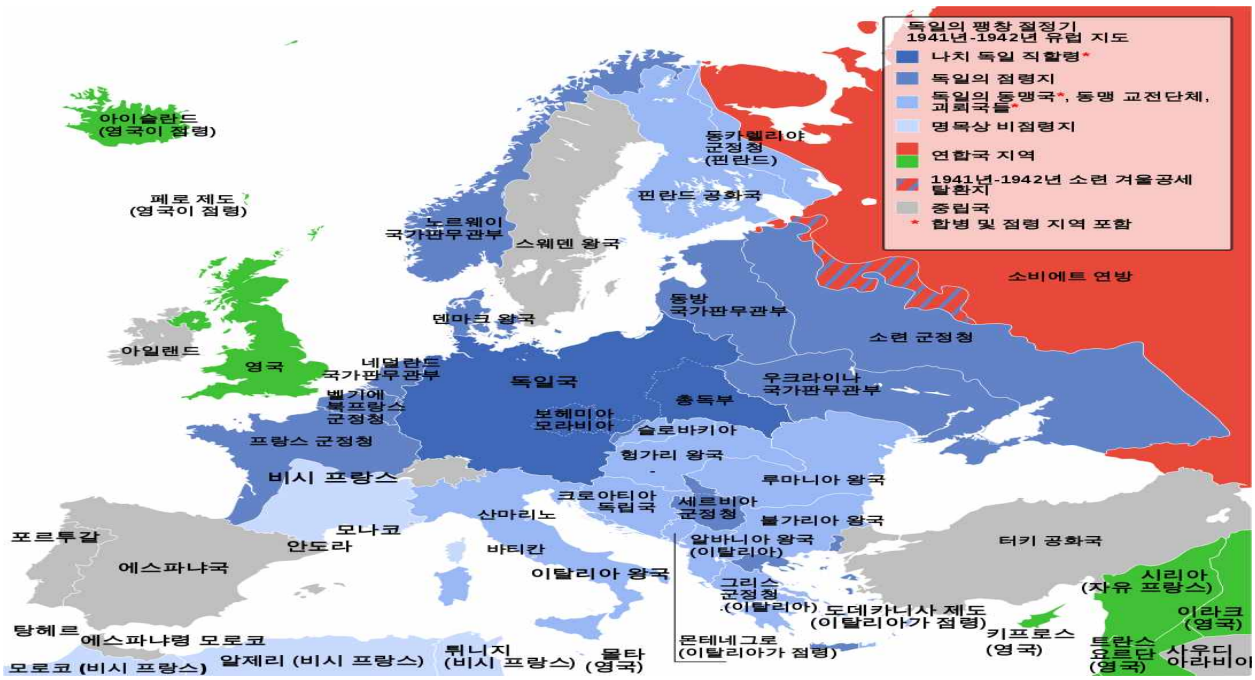
해전당시 독일의 순양전함[4] 자이들리츠

유틀란트 해전(Battle of Jutland, 1916년 5월 31일 ~ 6월 1일)은 독일 제국과 영국의 함대가 1916년 5월 31일 부터 6월 1일 이틀 동안 덴마크의 유틀란트 부근의 북해에서 벌인 해전이다. 이 전투는 제1차 세계 대전 중의 가장 큰 해전이었고, 역사상 유일한 전함간 함대결전이었다. 전투에는 세어(Reinhard Scheer) 부제독이 독일 해군의 외양 함대(High Seas Fleet)를, 존 젤리코(Sir John Jellicoe) 함장이 영국 해군의 영국 대함대(British Grand Fleet)를 지휘하였다.

대전 후, 양쪽 모두가 승리를 선언하였으나, 영국 해군은 더 많은 사상자를 내어 언론의 비난을 받았고, 독일 해군은 이후 잠수함을 이용한 무제한 공격에 관심을 기울였다.

4) 영어로는 Battlecruiser. 제2차 세계대전 당시까지 존재하던 해상 군함 함급

6. 제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정세

가. 개요

제2차 세계 대전(Second World War 또는 World War II)은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치러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긴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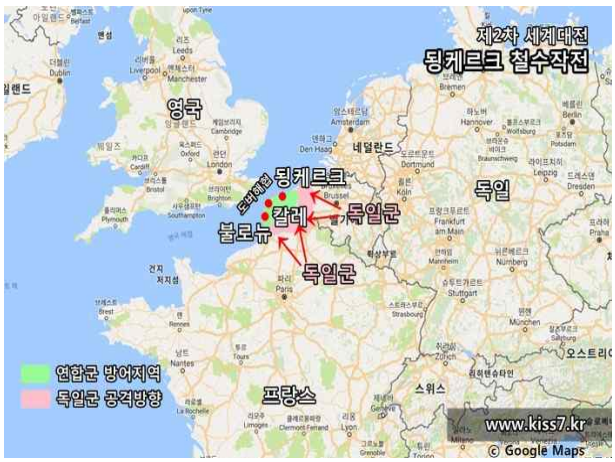
통상적으로 전쟁이 시작된 때는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 아돌프 히틀러가 다스리는 나치 독일군이 폴란드의 서쪽 국경을 침공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군이 1939년 9월 17일 폴란드의 동쪽 국경을 침공한 때로 본다.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는 1937년 7월 7일 일본 제국의 중화민국 침략, 1939년 3월 나치 독일군의 프라하 진주 등을 개전일로 보기도 한다.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 일본 제국 히로시마 시와 나가사키

시에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이후 8월 15일 일본 제국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사실상 끝이 났으며, 일본 제국이 항복 문서에 서명한 9월 2일에 공식적으로 끝났다. 이 결과로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 있던 지역들이 독립하거나 모국으로 복귀하고, 그 외에도 여러 제국들의 식민지가 독립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전사자는 약 2,500만 명이고, 민간인 희생자도 약 3천만 명에 달했다. 전쟁 기간 중 일본 제국은 1937년 중국 침략 때 난징 등에서 대학살을 감행하여 겁탈과 방화를 일삼으며 수십만 명의 난징 시민을 무자비하게 살해하였고, 포로 학살등 여러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나치 독일은 '인종 청소'라는 이유로 수백만 명 이상의 유대인과 집시를 학살하였다. 미국은 1945년 3월 10일 일본의 수도 도쿄와 그 주변 수도권 일대를 소이탄으로 대규모로 폭격한 이른바 도쿄 대공습을 감행해 민간인 15만 명을 살상했고, 같은 해 8월 6일과 9일에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 공격을 감행하여 약 34만 명을 살상하였고, 영국 공군과 미국 육군항공대는 드레스덴 폭격과 뮌헨 공습을 감행하여 각각 20여만 명을 살상하는 등, 전쟁과는 상관없는 민간인들의 피해도 매우 심했었다.

전쟁은 크게 서부 유럽 전선, 동부 유럽 전선과 중일 전쟁·태평양 전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중동, 대서양 해역과 인도양 해역 등 기타 하위 전선도 2차 대전의 전역에 포함된다.

나. 덩케르크 전투



덩케르크 전투 발생 지역

영국과 프랑스의 덩케르크 철수 작전

덩케르크 전투(Battle of Dunkirk)는 제2차 세계 대전 서부 전선에서 일어난 전투 중 하나이다. 이 덩케르크 전투는 5월 26일 시작하여 6월 4일 연합군의 다이나모 작전[5]으로 끝난다.

[6]가짜전쟁 이후 1940년 5월 10일 프랑스 공방전이 시작되었다. 동부의 독일 B 집단군은 네덜란드를 침공하며 벨기에 서부 방면으로 진출했다. 이에 대항하여, 프랑스 최고 사령관 모리스 가믈랭은 마지노 선에 의존하는 딜 계획을 발동한다. 가믈랭의 명령으로 3개 기계화 부대로 이루어진 프랑스 1 군과 영국 원정군(BEF)가 딜 강을 도하했다. 5월 14일, 독일 A 집단군은 아르덴 지역으로 스당 서쪽으로 빠르게 전진하여 독일 원수 에리히

5) 다이나모 작전(Operation Dynamo, 1940년 5월 26일 - 6월 4일)은 제2차 세계 대전 초기에 행해진 작전 중 하나로서, 덩케르크 전투에서 벨기에군과 영국 원정군(BEF) 및 3개 프랑스군 등 총 34만여 명을 구출할 목적으로 실행된 작전이다. 영국 해군 중장 베트람 램세이가 작전을 계획하여,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에게 다이나모 룸(다이나모는 발전기가 있던 도버 성 지하의 해군지휘소의 방 이름)에서 이 작전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 것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6) 가짜 전쟁(영어: Phoney War, 폴란드어: dziwna wojna)은 독일의 폴란드 침공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가 선전포고한 1939년 9월부터 프랑스 공방전이 시작된 1940년 5월까지이다.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지만, 아직 서방 연합국과 나치 독일 간에 전면적 충돌이 거의 없었던 시기를 이른다. 양측의 선전 포고도 있었고 영국-폴란드 군사동맹과 프랑스-폴란드 군사동맹은 자동 참전 조항을 포함한 방위 조약이었지만, 독일과의 전면전을 우려한 영국과 프랑스는 폴란드에 대한 지원과 독일에 대한 공세 모두 시늉만 냈을 뿐이었다.

폰 만슈타인이 영국 해협까지 전진하며 일명 "낫질 작전"("황색 작전"또는 만슈타인 계획으로 알려짐)으로 효과적으로 연합군의 측면을 공격했다.

연합군의 일련의 반격 작전인 아라스 전투가 실패하고, 5월 20일 독일군은 해안에 도달하며 영국 원정군과 프랑스 1 군이 아르망티에르(Armentières) 근처에서 서로 절단되고 벨기에 육군과 프랑스 육군 대다수가 북부에 포위되었다. 해협 도달 이후, 독일은 영국군이 탈출하기 이전에 항구를 점령하여 영국과 프랑스군을 포위 섬멸하고자 했다.

전쟁에서 가장 논쟁되는 결정 중 하나로, 독일군은 덩케르크 근처에서 진격을 정지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정지 명령"은 아돌프 히틀가 발령한 것이 아니다. 게르트 폰 룬트슈테트와 발터 폰 클루게가 덩케르크 포위망 주변 독일군이 항구로의 진격을 멈추도록 합의했다. 히틀러는 5월 24일에 독일 국방군 최고 사령부(OKW)에서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 군은 3일간 진격을 멈추고 그 동안 연합군 탈출과 방어 준비를 할 시간을 벌었다. 영국군은 결국 덩케르크에서 약 33만명의 연합군 병사를 탈출시킨다.

7. 포클랜드 전쟁

영국령 포클랜드 지역

승전 후 개선하는 영국함대

실질적으로는 1833년 이후 영국령인 포클랜드에 대하여, 1816년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시 그 영유권도 계승한 것으로 주장하는 아르헨티나(에스파냐어로는 Malvinas제도로 불리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흔히 아르헨티나 영토로 생각하고 있다)가 1982년 4월 2일 무력점령을 감행한 데서 발단되었다.

이에 대하여 영국은 근해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으며, 또 남극대륙에의 전진기지로서의 포클랜드 방위를 위하여 급거 기동부대를 파견, 4월 26일에는 포클랜드제도의 동남쪽 1,500km에 있는 남조지아섬을 탈환하였다. 5월 20일 유엔 사무총장의 조정교섭이 실패로 돌아가자 영국군은 포클랜드에 상륙, 75일간의 격전 끝에 6월 14일 아르헨티나군의 항복으로 전쟁을 종결시켰다. 그러나 이 전쟁은 '포클랜드 휴전과 아르헨티나군의 철수에 양측이 합의하였다'고 항복이라는 말을 빼고 발표된 아르헨티나측 성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한 채 원점으로 되돌아갔으며, 다시 유엔으로 넘겨진 포클랜드 영유권 문제의 타결에는 어려움이 많다.

한편, 이 전쟁이 남긴 교훈으로는 첫째, 무기현대화에 따른 전비(戰費)의 팽창이다. 영국은 사상자 452명과 항공기 25대, 함정 13척을 잃었으며 전비 15억 달러를 소비하였는데, 국위선양 등 작은 성과에 비하여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사상자 630명과 항공기 94대, 함정 11척을 잃은 GNP 600억 달러의 아르헨티나는 거의 국력을 총동원하는 모험으로 영국보다 더욱 많은 전비를 염출하여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몰렸다. 둘째는 이 전쟁을 통하여 드러난 유엔과 미국의 무능이다.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개전 후에도 협상의 문호를 계속 개방하고 있었으나 유엔과 미국은 교전당사국

의 이해 조정에 실패하였으며, 특히 미국은 조급히 영국을 지원하고 나섬으로써 라틴아메리카 제국의 반미감정만 고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 전혀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대미신뢰에 커다란 문제점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IV. 영국의 추모행사

1. 정부 주도의 추모행사

가. 재향군인의 날(Armed Forces Day)

재향군인의 날 행사

재향군인의 날이 생기게 된 계기는 지금껏 희생한 군인들의 노고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고든 브라운 전 총리의 주장으로, 2006년 2월 이에 대한 초안이 발표됨으로써 이다. 기념식 때에는 행사 개최도시 뿐 아니라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행사를 열며, 생존해 있는 사람들에게 메달을 수여한다.

매년 마지막주 토요일에 열리는 재향군인의 날은 2017년 현재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BBC에서 기념식을 매년 방영하고 있을 정도로 큰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기념식이다.

2017년 재향군인의 날은 테레사 메이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리버풀에서 기념식이 열렸으며, 전국적으로 300여개의 크고 작은 기념식이 열렸다고 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에어쇼를 비롯한 군악대의 퍼레이드 등 다양한 볼거리들도 함께 열렸다고 한다. 나는 8월에 입국했던 관계로 이 행사를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행사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생한 현장 사진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재향군인의 날이 열리는 주간에 예비군의 날(Reserves Day)을 별도로 지정한다. 2017년의 경우 6월 21일에 지정된 예비군의 날에는 전역한 군인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군복을 입고 민간인으로서의 삶을 보낸다. 예비군의 날을 시행하는 이유는 영국 전역에서 묵묵히 본인의 삶을 살고 있는 예비군들에게 그동안 그들이 예비군임을 알지 못했던 고용주나 동료들이, 예비군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 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에 대해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함이다.

재향군인의 날 행사

예비군의 날

나. 현충일(Remembrance Day)

현충일 관련 사진

영국의 현충일은 일명 Poppy[7] Day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2분여간 전국적으로 묵념을 시간을 갖으면서 시작 된다. 이 날의 유래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서명일인 1918년 11월 11일에서 이다. 또한 11시에 묵념을 시작하는 것은 1차 세계대전 종전 총성이 오전 11시에 멈췄기 때문이다.

나도 영국의 현충일에 양귀비꽃 뱃지를 가슴에 달고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분들에 대한 넋을 기리는 영국인들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현충일의 또 다른 이름인 Poppy Day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격전지였던 북부 프랑스 지역(현재의 벨기에 Ypres 지역 Flanders 마을)에서 전쟁의 참화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돋아난 붉은 야생 양귀비꽃을 보고 캐나다군 소령이었던 [8]John McCrae라는 장교가 쓴 시 “In Flanders Fields"가 잡지에 게재되어 일반인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 시에 감명을 받은 미국의 조지아주에 거주하던 [9]Moina Belle Michael은 이 시에 답하는 시 ”We shall keep the faith"를 발표하고 전쟁에서 희생된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 붉은 양귀비꽃을 기억의 상징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의 Poppy Day로 발전하였다.

---

7) 앵속 · 약담배 · 아편꽃이라고도 한다. 지중해 연안 또는 소아시아가 원산지이다.
8) 존 맥크레(1872년 11월 30일 – 1918년 1월 28일) 캐나다 시인, 의사, 작가, 군의관으로 1차 세계대전 참전
9) 모이나 마이클(1869년 8월 15일 – 1944년 5월 10일) 미국의 교수이자 인도주의자

In Flanders Fiel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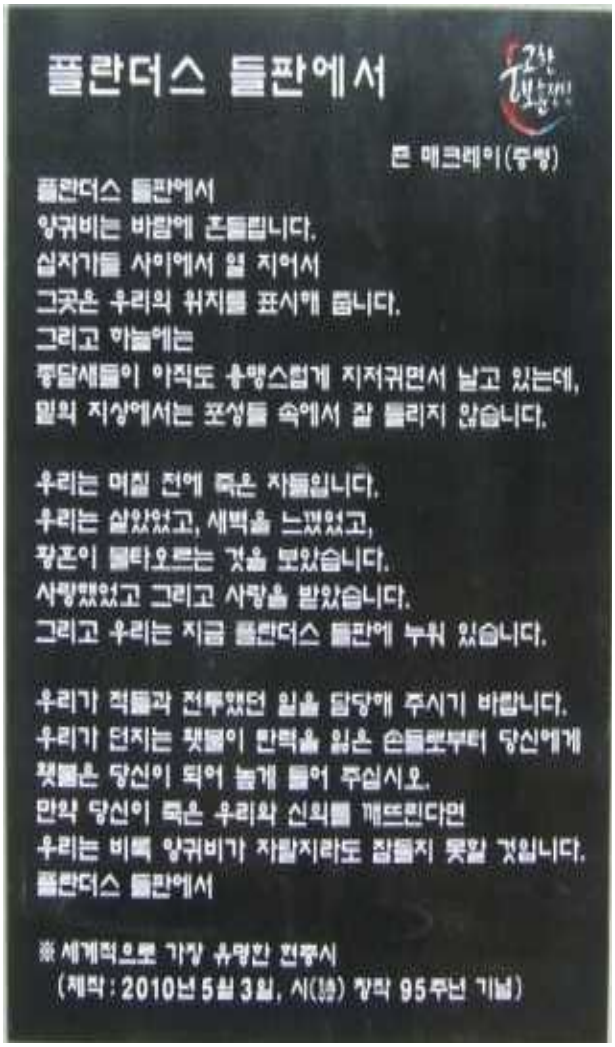
John McCrae

In Flanders fields the poppies blow
Between the crosses, row on row,
That mark our place; and in the sky
The larks, still bravely singing, fly
Scarce heard amid the guns below.

We are the Dead. Short days ago
We lived, felt dawn, saw sunset glow,
Loved and were loved, and now we lie
In Flanders fields.

Take up our quarrel with the foe:
To you from failing hands we throw
The torch; be yours to hold it high.
If ye break faith with us who die
We shall not sleep, though poppies grow
In Flanders fields.

In Flanders Fields 원문



In Flanders Fields 번역본

영국의 재향군인회(the Royal British Legion)[10]에서는 Poppy Day와 관련된 여러 수익사업(양귀비꽃 관련 쇼핑몰 운영) 및 기금모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곳의 수익금 및 기금은 모두 참전제대군인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10) 1921년 5월 15일에 1차 세계 대전 후 퇴역한 군인들에 의해 설립되었음. 조직의 목적은 참전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참전군인 및 사망한 참전 군인들의 유족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2. 민간 주도의 추모행사

영국의 보훈관련 단체는 가장 큰 재향군인회(Royal British Legion)를 비롯하여 군인가족부조회(SSAFA Forces Help), 영국지체절단 상이군인회(British Limbless Ex-servicement's Association), 대영전쟁미망인회(War Widows Association of Great Britain) 등 여러 단체가 있으며, 이들 단체는 각각 기금모금 및 자선사업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을 돕고 있다. 여기에서는 영국 보훈단체의 종류 및 시행하고 있는 기념행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가. 영국 재향군인회(Royal British Legion)

재향군인회 창설

재향군인회의 포피운동 포스터

1921년에 설립된 재향군인회는 영국의 현충일과 관련하여 Poppy Appeal(파피 운동-기금마련 독려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으며, 영국 전역에 16개 지역사무소에 1,500명 이상의 직원이 상주하며 재직군인, 퇴역군인 및 그 가족들이 실질적인 도움과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일반 대중들에게는 다양한 서비스 및 지역 사회 활동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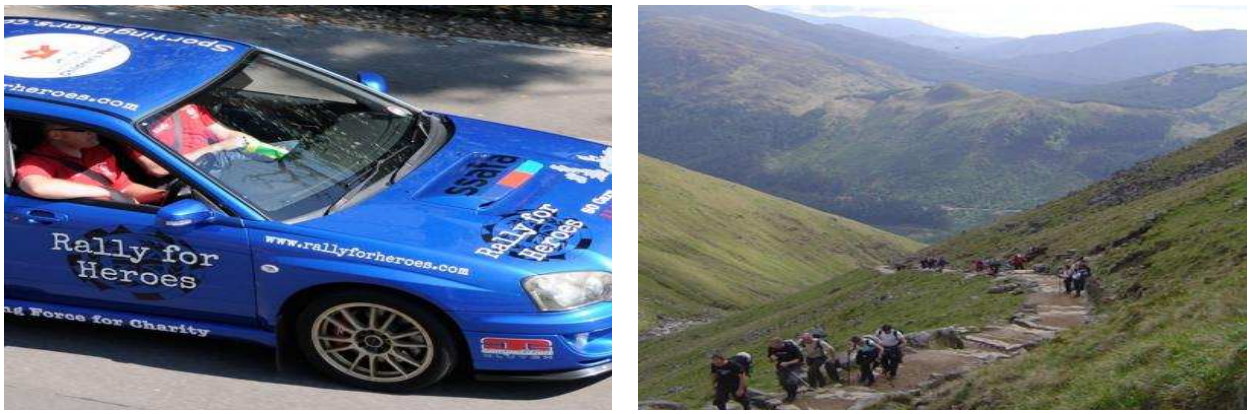
재향군인회는 Poppy Appeal의 일환으로 복권사업 및 많은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스포츠 이벤트에는 마라톤, 골프, 자전거, 스카이다이빙 등이 있다.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

나. 영국 군인가족부조회(SSAFA Forces Help)

영국 군인가족부조회는 1885년 설립되어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군인 자선단체인 SSAFA(Soldiers Sailors and Airmen's Family Association)와 Forces Help Society가 합병하여 통합 출범한 자선단체 이다. 현재 SSAFA의 전문 직원과 7,000 명의 자원 봉사자 네트워크는 2 차 세계 대전 참전용사에서부터 젊은 군인 가족 및 아프가니스탄에서 부상당하거나 사망 한 여성에 이르기까지 매년 9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군인가족부조회가 기금을 모금하는 방식은 영국 재향군인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스포츠 이벤트를 통하거나 직접 기부를 받는 것이다.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

다. 영국 지체절단 상이군인회(British Limbless Ex-servicemen's Association)

영국 지체절단 상이군인회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팔·다리 및 실명 등으로 신체 일부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참전 군인들의 재활과 복지를 위해 1932년 설립된 자선 단체이다.

상이군인회는 팔·다리를 잃은 군인들의 의수·의족, 휠체어 등의 보철구를 제공하며, 부상당한 군인들의 정신적인 상담도 병행하여 진행하여, 그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상이군인회는 많은 기업들과 파트너십과 여러 가지 기금모금 이벤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파트너십 및 다양한 기금모금 이벤트

라. 대영전쟁미망인회(War Widows Association of Great Britain)

대영전쟁미망인회는 전쟁에서 사망한 영국군 미망인들이 그녀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였으며, 1979년 마침내 미망인 연금에 대해서 면세 되었다. 이후 미망인회는 그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를 위한 자선단체로 발전하였으며, 1년에 3차례 "COURAGE"라는 잡지를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대영전쟁 미망인회 회원들

미망인회에서 발행하는 잡지

마. 물망회(The Not Forgotten Association)

물망회는 1920년 미국인 소프라노 가수인 마르타 커닝햄(Marta Cunningham)이 제1차 세계대전 중 공연차 영국의 군병원을 방문한 이후, 전쟁으로 인해 장애를 얻은 장병들의 휴식과 위문을 위해 엔터테인먼트와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물방회는 회원들에게 여름가든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콘서트, TV 시청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념비

크리스마스 파티

바. 제대군인 정신건강 자선회(The Veterans' Mental Health Charity)

제대군인 정신건강 자선회는 1919년 5월 제1차 세계 대전 직후에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의 명칭은 "Ex-Servicemen 's Welfare Society"였으며, 1920년 사우스 웨스트 런던의 퍼트 니 힐 (Putney Hill)에서 첫 번째 "정신건강 치료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제대군인 정신건강 자선회는 영국 최고의 제대군인 정신 건강 자선 단체이며, PTSD[11], 우울증 및 불안 등 정신 건강 상태를 치료하고 있다. 이곳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6,000명 이상의 제대군인들이 등록한 상태이며, 이분들의 치료와 지원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11)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제대군인 정신건강 자선회

정신건강 치료센터

사. 군인 자선단체(ABF The Soldiers' Charity)

군인 자선단체(ABF The Soldiers' Charity)는 1944년 육군부조기금(The Army Benevolent Fund)으로 설립되었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이후 많은 병사들이 퇴역하여 연대 및 군단의 자선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군인 및 참전 용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 자선 단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2010년 2월에 "ABF The Soldiers' Charity"로 명칭 을 바꾸었으며 군인과 그 가족을 돕는 개인 및 기타 전문 자선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육군 가족을 계속 지원해 오고 있다.

ABF 군인 자선단체는 여러 가지 스포츠 이벤트 및 온라인 상점 운영, 런치 판매 수익금 등을 통해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기금모금 활동

Big Curry Lunch 이벤트

아. 왕립 공군회(The Royal Air Force Association)

1929년 버논 굿 핸(Bernon Goodhand), 조 피어스(Joe Pearce), 바틀렛(Bartlett)이라는 세 명의 사람들이 전역한 공군들의 복지를 위해 하나의 단체를 설립하자는 의논을 시작으로 1933년 정식 단체로 인정되었다. 당시의 명칭은 “Comrades of the Royal Air Forces Association” 이었다.

1930년대 초반 동안 협회는 급속한 진전을 보였으며, 회원들을 위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를 잃은 회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용 식품바구니를 선물하기도 했다.

1943년에 이르러 영국 공군에 복무한 사람이 백 만명 이상이 되자, 조직의 이름이 왕립 공군 협회 (Royal Air Forces Association) 로 변경되었다.

현재 협회는 가장 일선에서 RAF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 포클랜드전쟁, 중동 분쟁에 참전한 군인 및 아프가니스탄 참전 용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서비스 요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금마련 이벤트

자. 왕립 알프레드 해군회(The Royal Alfred Seafarers' Society)

1857년 7월 17일 런던의 맨션 하우스(Mansion House)에서 "크고 영향력 있는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늙은 장애인 상인 선원"을 위한 병원 설립에 대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결과 템스 강 남쪽에 있는 에리스(Erith)의 벨베 데어 하우스 (Belvedere House)에서 1865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회원들을 위한 양로원 및 치매전문 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 없는 회원들에게는 영국 전역에서 주거지원 및 보호 숙박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왕립 알프레드 해군회 활동

차. 영국한국전참전용사협회(The British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영국 한국참전용사협회는 1981년 9월에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과 한국과 일본의 평화 유지군으로 복무했던 제대군인들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 최근에는(2017년 7월 23일) 전영추모수목원 영국군 참전용사 추모 기념관에서 추모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전 참전 기념비　　영연방 참전 군인들의 재방한

V. 영국인의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현충시설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신사의 나라, 축구 종주국, 비와 우산의 나라, 해리포터의 고향, 펍의 도시, 피시 앤 칩스, 우리가 생각하는 영국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직접 영국에서 생활을 해보면서 가장 많이 놀랐던 것은 길을 걷다보면 2~3분 내의 거리에 크고 작은 공원들이 계속 이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국인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에서 커피나 간단한 간식을 먹거나 해가 많이 보이는 날에는 담요를 깔고 일광욕을 즐기곤 한다.

또한, 공원에는 시민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게 많은 벤치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유심히 보지 않아서 알아차릴 수 없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설치된 벤치들 중 상당한 수가 시민들의 기부에 의해서 설치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벤치에는 누군가를 기리는 문구들이 함께 쓰여 있다.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친구 등의 죽음에 대해 영국인들은 그들의 곁에 항상 함께하는 공원에 떠나간 이들을 기리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영국의 현충시설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다. 영국 전역에 총 68,000여 개의 현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접할 수 있는 현충시설들을 통해서, 영국인들은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 항상 기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국의 현충시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제국 전쟁박물관(Imperial War Museums, IWM)

제국 전쟁 박물관은 영국의 국립 박물관으로 1917년에 시민과 군인의 기여와 희생을 기록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총 5개의 지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중 3개는 런던에 1곳은 맨체스터(Greater Manchester)에 1곳은 캠브리지셔에(Cambridgeshire) 위치하고 있다.

가. 런던 전쟁박물관

전쟁박물관 전경

전쟁박물관 옆 공원

런던 전쟁박물관은 전쟁박물관 중 가장 유명하며, 자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내가 이곳을 방문한건 영국의 Bank holidays[12] 기간 이었는데, 많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이 방문한 걸 볼 수 있었다. 특히 가족단위 관람객이 많았고, 그 날의 날씨는 사진에서 보는바

12) 영국의 공휴일이며, 그 날은 8월 마지막주 월요일 공휴일인 서머뱅크홀리데이 (Summer Bank Holiday) 였다.

와 같이 화창하여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잔디밭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전쟁박물관에는 제1차 세계대전부터 오늘날의 시리아 내전에 이르기까지의 사진전시, 무기전시 및 그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전쟁이나 분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만나 볼 수 있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홀로코스트[13]의 특별관이었는데 여기에는 홀로코스트의 발생 원인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연대순으로 나열되어 있었으며,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까지 화면으로 만나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홀로코스트 관에서는 사진촬영이 허락되지 않았다.

전시품들

13) 홀로코스트(Holocaust) : 일반적으로 인간이나 동물을 대량으로 태워 죽이거나 대학살하는 행위를 총칭하지만, 고유명사로 쓸 때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스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을 뜻한다.

나. 맨체스터 전쟁박물관

전쟁박물관 전경

기울어진 전쟁박물관 내부 모습

맨체스터 제국 전쟁박물관은 2002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폭격으로 소실된 건물의 자리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14]가 설계한 건축물이다.

이 건물은 주전자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전쟁으로 인해 부서진 지구의 모습을 육지, 바다, 하늘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불안한 본질을 관람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박물관내 경로를 혼란스럽게 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14) 다니엘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 1946년 5월 12일 폴란드 우치 ~)는 미국의 건축가로, 유대계 폴란드인이다. 폴란드의 로지에서 태어났다.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경험한 부모님 밑에서 자람으로써 평생 홀로코스트의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다. 11살이 되던 해, 그의 가족은 시국이 불안정하던 폴란드를 떠나 이스라엘로 간다. 뛰어난 아코디언 실력으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이스라엘 문화재단(America-Israel Cultural Foundation)의 장학생으로 뽑히기도 했다. 1965년에 미국인으로 귀화했고 브롱크스 과학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림에 푹 빠진 그는 뉴욕에 있는 미국 최고 건축대학인 쿠퍼 유니언에 들어가 리차드 마이어와 피터아이젠만을 사사했다.

다. 15)덕스포드(Duxford) 전쟁박물관

전쟁박물관 모습

박물관 내부 전시관

덕스포드 제국 전쟁 박물관은 1918년에 처음 개장 한 이래로 오늘날까지 운영되고 있는 역사 깊은 비행장인 Duxford Airfield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 총 8개의 전시동이 있으며, 대부분 항공 관련 전시물들이다. 특이한 점으로는 항공기를 복원하는 건물이 있는데 이곳도 직접 구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곳에서는 전시회, 에어쇼, 각종 이벤트 등이 개최되고 있으며, 각종 체험 행사를 통해 에어쇼를 진행하는 전투기에 탑승 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15) 영국 캠브리지에 있는 마을

라. 처칠[16]의 전쟁박물관(Churchill War Rooms)

전쟁박물관 모습

윈스터 처칠

처칠의 전쟁박물관은 명칭에서 나와 있듯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과 영국정부의 전쟁과정과 일반인들이 알지 못했던 비밀벙커 등을 전시하고 있다.

영국민들이 가장 추앙하는 정치인인 처칠의 전쟁 극복과정의 발자취를 따라가 봄으로써, 왜 영국인들이 그토록 처칠이란 인물을 존경하고 기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박물관 근처에는 나오면 전세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명소인 웨스터민스터 성당, 국회의사당, 빅벤, 런던아이 등이 있다.

16) 윈스턴 레오너드 스펜서처칠 경(Sir Winston Leonard Spencer-Churchill, 1874년 11월 30일 ~ 1965년 1월 24일)은 영국의 총리(1940년 5월 10일 ~ 1945년 7월 26일, 1951년 10월 26일 ~ 1955년 4월 7일)를 지낸 정치가이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영국을 구해낼 사명을 안고 총리직에 올랐으며, 이때 그가 의회에서 한 "나는 여러분께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밖에는 달리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는 연설은 역사에 길이 남는 명연설이 되었다.

마. [17]벨파스트호 전쟁박물관

전쟁박물관 모습

한국전쟁 당시 벨파스트호

벨파스트호는 순양함[18]으로 1938년 3월 17일 진수(進水) 하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3년 노스케이프 전투,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가하였다. 1950~1952년에는 유엔 해군으로 편성돼 한국전에도 사용되었다. 현재 영국 제국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박물관에는 벨파스트호의 활약상과 왕립 해군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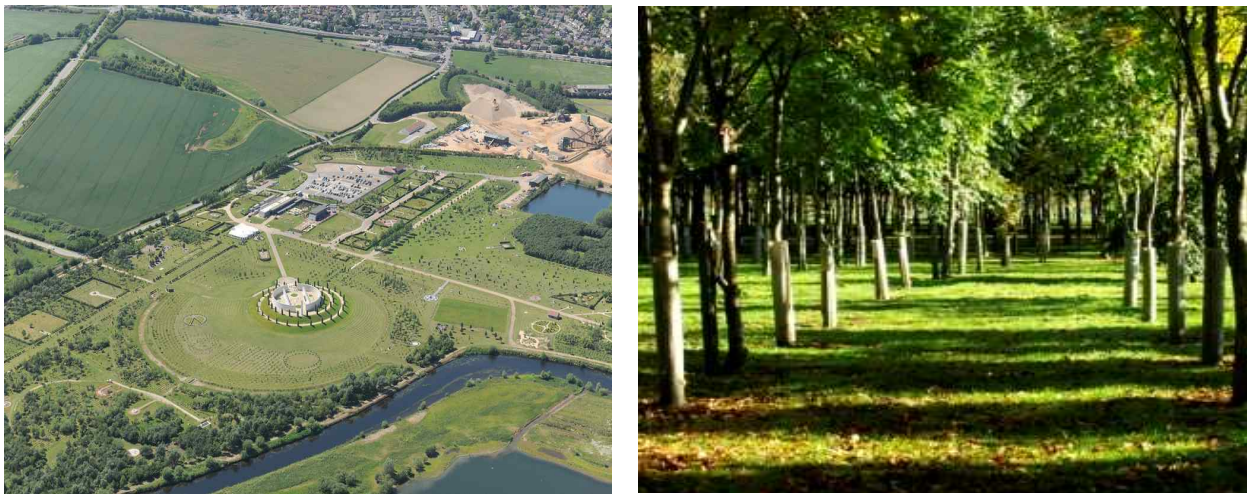
군함을 박물관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이 곳은 군함 곳곳을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바다에서 또 전쟁에서 당시 해군들이 어떤 생활을 했고 그들의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

17) 벨파스트호 는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순양함으로 영국 런던에 있다. 1971년 10월부터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18) 수상전투함 분류상 전함(battleship)과 구축함(destroyer)의 중간급이라고 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함으로, 순항거리가 길고 속력이 고속인 것이 특징임.

2. 전영추모수목원(National Memorial Arboretum)

1977년 공사를 시작하여 2001년 5월 16일에 문을 개원한 추모수목원은, 전 해군 사령관이었던 데이비드 차일즈(David Childs)가 미국 내셔널 몰(National Mall)[19]을 방문한 이후 영국에도 그와 같은 추모수목원을 건설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나무를 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 할뿐만 아니라 남을 사랑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토마스 풀러(Dr. Thomas Fuller)[20]의 정신을 이어받아 만들어진 전영추모수목원은 150에이커(183,626평)의 넓은 평원에 330여 개 이상의 기념관・기념탑들, 그리고 총 50,000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전영추모수목원

19)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 추모수목원이다.
20) 토마스 풀러(1608-1661년 8월 16일)는 영국의 성직자이자 역사가이다.

기념관 중에 밀레니엄 예배당(Millennium Chapel)은 방문객들이 조용히 명상하면서 추모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매일 오전 11시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추모식에는 선착순 120여명의 사람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관이 설치되어 있어, 매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에는 영군인 한국전 참전용사 및 그들의 가족들이 기념식에 참석하여 전쟁의 기억들을 되새기고 있다.

또한 국군기념관(The Armed Forces Memorial)은 2007년 10월 12일 공개된 기념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테러 활동 및 세계 여러나라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다 사망한 16,000명이 넘는 영국군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밀레니엄 예배당

한국전 참전 기념관

국군 기념관

연합군 특수부대 기념관

또한 수목원에서는 매년 수목원 사진전, 걷기행사, 오토바이 행진, 정전 기념일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가족이나 단체들의 방문을 증가시키고 있다. 현재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찾고 있고, 향후 50만 명의 방문객을 목표로 시설을 확장하고 있다.

수목원 사진전

수목원 걷기행사

수목원 오토바이 행진

정전협정 기념일 행사

3. 트라팔가 광장(Trafalgar Square)

넬슨 제독 기념탑

21)헨리 해벌락 동상(Henry Havelock)

앞서 영국의 전쟁역사에서 살펴보았던 1805년에 있었던 트라팔가르 해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영국 런던 코번트 가든에 만들어진 광장이다. 처음엔 윌리엄4세[22] 광장이란 이름으로 불렸으나, 건축가였던 조지 리드웰 테일러(George Ledwell Taylor)의 제안으로 인해 트라팔가 광장이 되었다.

트라팔가를 광장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광광명소이며, 내가 이곳을 찾았을 때에는 날씨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였음) 수많은 관광객이 광장에서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21) 헨리 헤벌 락(1795년 4월 5일 – 1857년 11월 24일)는 영국군 장교로서 1857 년 인도의 반란 중에 반군으로부터 Cawnpore 를 탈환 한 업적

22) 윌리엄 4세(William IV, 1765년 8월 21일 – 1837년 6월 20일)는 영국의 왕(재위 1830년 6월 26일 – 1837년 6월 20일)으로, 하노버 왕가가 배출한 다섯 번째 군주이다. 본명은 윌리엄 헨리(William Henry)이다. 조지 3세와 샬럿 소피아의 세 번째 아들이다.

이 광장은 에드워드1세[23]의 시대에는 왕가의 정원이었다. 1820년대 조지 4세[24]가 건축가 존 내슈에게 이 지역의 재개발을 의뢰하면서 지금의 형태가 된 것은 1845년에 이르러서였다.

트라팔가 광장의 조지4세 동상

내셔널 갤러리 바깥으로 나오면 거리의 행위 예술가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다. 대개 막대기 하나를 짚고 서 있는 마술을 선보여 눈길을 끌며, 런더너들에게 [25]버스킹(busking) 하면 생각나는 곳으로 꼽힐 만큼 늦은 저녁까지 버스커들로 붐빈다. 또한 이 광장은 정치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하여, 주말에는 여러 가지 집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광장에서의 테러규탄 집회

광장에서의 버스킹

23) 에드워드 1세(영어: Edward I, 1239년 6월 17일 ~ 1307년 7월 7일, 재위 1272년 11월 16일 ~ 1307년 7월 7일)는 키가 188 cm여서 '다리 긴 왕(Longshanks)'으로 알려져 있다. 생애 동안 웨일스와 스코틀랜드를 정복해 다스렸다.
24) 조지 4세(George IV, 1762년 8월 12일 – 1830년 6월 26일)은 영국의 왕(재위 1820년 1월 29일 – 1830년 6월 26일)이다.
25) '길거리에서 공연하다.'라는 의미의 버스크(busk)에서 유래된 용어로 거리에서 자유롭게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내가 학창시절 세계사를 배울 때 들었던 듯 아닌 듯 했던 트라팔가 해전에 대해, 그것을 기념하는 곳을 직접 방문하고 나서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떤 나라간의 전쟁이었는지, 그리고 전쟁을 이끌었던 넬슨 제독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역사적 위인이었다는 사실도 말이다.

자국민들의 전쟁 기념광장이 지금은 외국 사람들이 관광할 때 꼭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다는 사실, 그로 인해 영국을 찾는 세계인들이 영국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쯤은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영국인들의 자국에 대한 자부심(때론 자만심으로 느껴지지만) 형성에 영향을 끼쳐 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영국인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트라팔가 광장을 통해서 어떠한 국난이 일어나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한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4. [26]템즈 강변(River Thames) 과 Victoria Embankment Garden

가. 템즈 강변

템즈 강변 공군 추모비

템즈 강변을 걷다보면 강 건너로 런던의 명물인 런던아이가 보이는 곳에, 제2차 세계대전의 영국전투(The battel of Britain)[27]에서 전세를 역전할 수 있게 큰 활약을 했던 영국 공군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그리고 추모비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터 처칠이 독일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소수였던 영국 공군의 뛰어난 활약에 대해 의회에서 했던 연설 중 일부가 쓰여져 있다. "인류의 전쟁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빚을 이렇게 적은 사람들에게 진적은 없었습니다."라는 연설로 당시 영국군 전투 비행사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

26) 런던의 중심부를 흐르는 전체 길이 346km의 강

27) 1940년 7월 10일 ~ 10월 31일까지 영국 상공에서 벌어진 영국 공군과 독일 공군 사이의 전투. 이 전투에서 영국군의 승리로 인해 독일의 영국 본토 침공 계획이 무산됨.

나. [28]Victoria Embankment Garden

한국전 참전 기념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참전 기념비

템즈 강에서 트라팔가 광장쪽으로 향하는 방향에 Victoria Embankment Garden이 있다. 영국 국방부 건물이 바로 옆에 있으며, 주영 한국문화원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공원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한국전 참전 기념비 및 동상이다. 동상에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영국군 장병들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한글로 쓰여 있다. 영국주재 한인 단체 및 교민들의 후원으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니 더 의미가 있을 듯하다.

이 곳에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뿐만 아니라,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참전 기념비 및 영국의 전쟁 영웅들의 기념비들이 설치되어 있다.

28) 1865년에서 1870년 사이에 Joseph Bazalgette경에 의해 세워진 정원.

5. 일포드 공원 폴란드 마을(Ilford Park Polish Home)

입구 표지판

정착지 최근모습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군의 일원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친 폴란드군인들은 전쟁이 끝난 이후 소련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공산화된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갔을 경우 정치범으로 처형되거나 박해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당시 총리였던 처칠은 이 폴란드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뤘던 큰 공헌을 인정하여, 영국은 이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의회에 호소하였고, 1947년 영국의회에서는 이들을 돕기 위한 법률이자 영국 역사상 최초의 대량 이민법인 폴란드인 정착법(Polish Resettlement Act)을 통과 시켰다.

영국의 보훈청(Veterans Agency)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포드 폴란드 마을은, 처음 폴란드인 정착법의 취지는 전쟁에 참여한 폴란드인 본인이나

가족들을 영국에 정착시키려는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거보호 및 의료보호 시설로 바뀌어 갔다.

현재 폴란드인 마을은 영국 남서부 데본(Devon)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2년 12월 16일 대대적인 보수작업 후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마을 안에 제공하고 있는 시설에는 높은 수준의 주거시설, 예배당, 81개 병상의 병원, 14개 병상의 양로원, 폴란드 식료품점 및 엘리베이터, 정원, 미용실 등이 있다. 또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는 주민위원회를 통해 마을의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폴란드어 및 영어 신문, 폴란드어 및 영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이 상주하고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초기 정착지 모습

마을 내의 예배당

마을 내의 폴란드 식료품점

요양 시설

6. 세노타프(Cenotaph)

1920년 세노타프의 첫모습

현충일 행사 모습

세노타프(cenotaph)의 뜻은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이들을 위한 엄숙한(전몰장병) 기념비란 뜻이다. 그리고 영국의 세노타프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맞아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에서 싸우다 전사한 이들을 위한 기념물이 필요했고,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David Lloyd George)[29]의 정부는 '세노타프'(그리스 어로 '빈 무덤'이라는 뜻)를 짓자는 에드윈 러티언스의 제안을 수락했다. 전통적인 양식의 건축가였던 러티언스는 많은 전쟁 기념관과 묘지를 짓게 된다. 그리고 그는 이 세노타프로 인해 명성을 쌓게 되었으며, 건축계를 넘어서까지 당대 최고의 건축가로 널리 인정받게 된다. 또한 건축 역사가 Gavin Stamp는 그를 "20 세기 가장 위대한 영국 건축가"라고 묘사했다.

매년 휴전기념 일요일(Remembrance Sunday)[30]에는 양차 세계대전의 사망자들을 위한 의식이 세노타프에서 열리며, 2분간의 묵념 시간이 지켜진

29)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총리(1916년 12월 6일 -1922년 10월 19일)
30) 영국 과 영연방 국가들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 및 그 이후 일어난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희생된 이들을 기리기 위해 매년 11월 11일에 가장 가까운 11월 두 번째 일요일에 열리는 휴전 기념일.

다. 이 기념비는 잉글랜드, 이후에는 영국과 대영 제국이 몇 세기 동안 지배해 왔던 화이트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근처에는 수상 관저와 재무 장관 관저가 있는데, 둘 다 다우닝 스트리트(Downing Street)[31]에 있다.

7. 무명용사 묘지(The Tomb of the Unknown Warrior)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무명용사 묘지

웨스트민스터 사원

전쟁에 관한 영국 기념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웨스트민스터사원의 무명용사 무덤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2년이 지난 1920년 11월 11일, 서부전선 격전지 중 하나였던 벨지움에서 발굴한 영국군 무명용사를 영국 왕실의 성당 웨스트민스터 사원 정문 바닥에 안치한 것이다. 이후 이곳은 영국을 방문하는 각국 수반들이 화환을 바치는 곳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 무명용사는 2000년 BBC가 조사한 100명의 위대한 영국인에도 76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이 무명용사 무덤은 제1차 세계대전 중 서부전선에서 많은 죽음을 목격한 군종신부 데이비드 레일톤의 제안에 따라 웨스트민스

31) 영국 런던의 거리로, 영국 내각의 최고 수석장관(영국 총리, 영국 재무장관) 두 명이 공식 거주하는 저택이 300년 넘게 자리해 있는 거리기도 하다.

터 사원의 주임 신부와 당시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가 찬성을 해서, 왕이나 장군이 아닌 병사, 그것도 이름도 안 알려진 무명의 병사에게 역사상 처음으로 영광이 돌아간 것이다. 이런 무명용사의 무덤은 이것이 최초이고 이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됐다. 프랑스에서도 영국의 무명용사가 안장된 같은 날에 샹젤리제의 끝 광장에 세워진 개선문 안에 무명용사의 무덤을 만들어 안장했다.

BENEATH THIS STONE RESTS THE BODY OF A BRITISH WARRIOR UNKNOWN BY NAME OR RANK BROUGHT FROM FRANCE TO LIE AMONG THE MOST ILLUSTRIOUS OF THE LAND AND BURIED HERE ON ARMISTICE DAY 11 NOV: 1920, IN THE PRESENCE OF HIS MAJESTY KING GEORGE V HIS MINISTERS OF STATE THE CHIEFS OF HIS FORCES AND A VAST CONCOURSE OF THE NATION THUS ARE COMMEMORATED THE MANY MULTITUDES WHO DURING THE GREAT WAR OF 1914-1918 GAVE THE MOST THAT MAN CAN GIVE LIFE ITSELF FOR GOD FOR KING AND COUNTRY FOR LOVED ONES HOME AND EMPIRE FOR THE SACRED CAUSE OF JUSTICE AND THE FREEDOM OF THE WORLD THEY BURIED HIM AMONG THE KINGS BECAUSE HE HAD DONE GOOD TOWARD GOD AND TOWARD HIS HOUSE	이 묘석 아래에는 이름도 계급도 알 수 없는 영국 전사의 시신이 묻혀 있다. 시신은 프랑스로부터 운구하여 1920년 11월 11일 종전기념일을 기해 국왕 조지5세 각료들 장군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참관한 가운데 가장 걸출한 위인들과 나란히 영면하도록 이곳에 안장되었다. 이렇게 1914년에서 1918년에 걸친 위대한 전쟁 중에 신을위해 국왕과 조국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과 대영제국을 위해 신성한 대의인 자유와 정의를 위해 가장 소중한 생명 자체를 희생한 모든 사람들을 추모하노니 전사는 신과 조국에 대한 본분을 다하였으므로 역대 국왕들 사이에 묻히노라.
무명용사 묘지 비문 원문	**번역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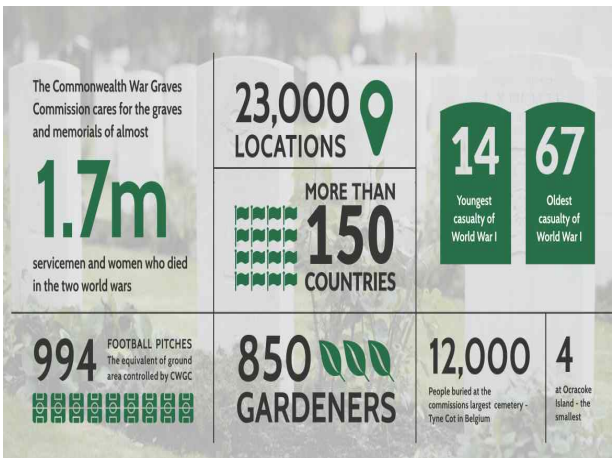
웨스트민스터사원 바닥에 묻힌 무덤 중 유일하게 방문객들이 밟지 못하는 곳이 '무명용사의 무덤'이다. 이를 덮은 검은 벨지움 화강암 석판에는 '신과 왕과 조국,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제국과 정의의 성스러운 가치를 위해, 그리고 자유로운 세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인 목숨을 바친 용사에게 기도를 바친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신분이나 계급도 알 수 없었던 이 무명용사의 시신을, 왕들이나 위대한 장군들이 묻혀있던 웨스트민스터사원에 안장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영국인들이 자신들의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예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웨스트민스터사원의 무용용사 묘지를 마주보던 날, 국가를 위한 · 국민을 위한 희생은 그 어떤 것보다 고귀하고 훌륭한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는 영국이란 국가가 대단해 보이고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8. 영연방 전쟁묘지 위원회(CWGC)

CWGC 홈페이지



숫자로 보는 CWGC

170만 명의 전사자, 150여 개국 23,000여 곳의 장소, 축구장 994개 크기, 850개의 정원, 이 숫자들은 영국에 위치한 영연방 전쟁묘지 위원회에 관리하는 묘지를 상징하는 것들이다.

1917년 5월 21일 영국・캐나다・호주・인도・뉴질랜드・남아프리카공화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설립된 CWGC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 산재한 제1차・제2차 세계대전의 전사자 약 170만 명에 대한 묘지 및 기념비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6개 지역사무소와 12개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가. 역사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리오 틴토 컴퍼니(Rio Tinto Company)[32] 의 파비안 웨어(Fabian Ware) 이사 는 영국 군대에 합류하기 원했으나 나이가 많아서(45세) 군에 입대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회사 회

32) 1873년 설립된 이 회사는 영국의 다국적 기업으로 세계 최대의 금속 및 광산 회사 중 하나이다.

장인 밀너(Viscount Milner)의 도움으로 영국 적십자 부대의 지휘관을 맡아서 전장에 뛰어 들었다. 그는 1914년 9월 프랑스에 도착했으며, 전사자들의 무덤 위치를 문서화하거나 표시해놓은 공식적인 문서가 없는 것을 알게 되어, 적십자 내에서 전사자들의 무덤에 대해 기록하는 곳을 조직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파비안 웨어의 조직은 1915년 3월 영국군 묘지등록 위원회로 이관되어 제국 전쟁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얻고 지원을 받으며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파비안 웨어와 그의 주변 사람들은 전쟁 종료 후의 묘지관리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되었다. 군의 제안에 따라 영국 정부는 1916년 1월 군인들의 무덤을 관리하는 국가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초대 위원장은 에드워드 8세(Edward)[33]가 임명되었다. 이후 1917년 5월 21일 제국 전쟁묘지 위원회(Imperial War Graves Commission)가 로얄 헌장(Royal Charter)[34]에 의해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지금의 위원회 명칭은 1960년도에 바뀐 것이다.

Sir Fabian Arthur Goulstone Ware
: (1869. 6. 17. ~ 1949. 4. 29.)

파비안 웨어는 오늘날 영연방 전쟁묘지 위원회의 전신인 제국 전쟁묘지 위원회의 설립자 이다.

33) Edward VIII (Edward Albert Christian George Andrew Patrick David; 1894. 6. 23. - 1972. 5. 28.)는 영국의 왕으로서 영국 역사상 가장 짧게 재위한 왕중 한명(재위 기간 : 326일)
34) 군주가 발행 한 공식 문서

나. 조직 및 예산

영연방 전쟁묘지 위원회의 위원장은 켄트 공작(에드워드 왕자)[35]이 맡고 있으며, 의장은 영국 국방부장관이 겸임하고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영연방 전쟁묘지 위원회는 4개의 지역사무소(Areas), 2개의 직할 에이전시(Direct Agency), 2개의 산하기관(arms length Agency)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총 1,300여명으로 이들 중 대부분은 정원사 및 묘비를 제작하는 석공이라고 한다.

CWGC 조직도

35) Edward George Nicholas Paul Patrick : 에드워드 왕자는 엘리자베스2세 영국 여왕의 사촌으로 1935년 10월 9일 출생.

CWGC는 회원국 정부와는 독립된 위원회이며, 예산은 회원국들의 묘지 수에 비례하여 기금으로 납부 받고 있다. 2015~2016회계연도 자료를 살펴보면 회원국들이 총 납부한 기부금은 약 6,100만 파운드이며, 이중 80% 가량은 영국 정부에서 납부한 금액이다.

COMMONWEALTH WAR GRAVES COMMISSION
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year ended 31 March 2016

1 Incoming resources from Member Governments

The value and percentage of contributions being made by Member Governments is as follows:

	Percentage contribution	**2016 £'000**	2015 £'000
United Kingdom	78.43%	**47,748**	46,996
Canada	10.09%	**6,141**	5,994
Australia	6.05%	**3,683**	3,626
New Zealand	2.14%	**1,304**	1,283
South Africa	2.09%	**1,273**	1,261
India	1.20%	**728**	724
	100.00%	**60,877**	59,884

2015~2016회계연도 결산자료

다. CWGC의 묘지관리 원칙

- 모든 전사자에 대하여 묘비석 또는 현충탑에 이름을 새겨서 추모한다.
- 묘비석과 현충탑은 영구적으로 관리한다.
- 묘비석 규격을 동일하게 한다.
- 전사자를 계급・인종・종교에 따라 구분 짓지 않는다.

영연방 전쟁묘지 위원회의 묘지관리 원칙을 보고, 우리나라의 묘지관리를 비교해 보면서 조금은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계급에 따라 그들을 예우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것인가? 높은 계급의 희생이 더 높게 추앙받아야 하는 것인가? 물론 서구적 관점이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란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희생이 더 예우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를 위한 모든 희생은 똑같이 숭고하다."라는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새로 확인된 전사자의 장례식

동일한 규격의 묘비

VI. 우리나라의 추모행사

우리나의 추모행사는 법률인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3·1절과, 광복절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총 5개, 규정에 의한 기념행사의 종류는 총 47개이며, 행사를 주관하는 부처는 각 행사의 성격에 맞게 나누어져 있다. 그 중 여기에서 알아볼 추모관련 기념일은 3·1절, 광복절, 3·15의거 기념일, 서해수호의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19 혁명 기념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6·10민주항쟁 기념일, 현충일, 6·25 전쟁일, 재향군인의 날, 순국선열의 날이다.

우리나라의 추모행사는 대부분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민간에서는 예산 부족 및 행사를 주관할 조직이 거의 없거나 크지 않아 행사를 주관하기 힘든 실정이다. 영국의 경우 보훈단체 자체 모금 및 자선단체의 지원에 의해 기념일 등의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처럼 매끄럽고 질서 있는 행사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시민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함으로써 그 기념일에 대한 참의미를 되새겨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 3·1절

유관순 열사로 대표되는 3·1절은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내용으로는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전 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하였다.

2017년 제98주년을 맞았던 3·1절 행사의 목적은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참여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과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그 명예를 선양하는 한편,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었다. 기념행사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유관순열사 추정모습

1952년 당시 3·1절 행사

2. 광복절

일본으로부터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제정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

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7년 제72주년을 맞이한 광복절의 행사 목적은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경축식을 추진하고 새 정부 첫 광복절을 맞이하여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참여, 국정철학 공유 및 국민화합의 계기 마련하는 것이다. 광복절의 주관부처는 행정안전부 이다.

1948년 정부수립 경축식

1948년 정부수립 경축 퍼레이드

3. 3·15의거 기념일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2010년 3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15 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고 있다.

2017년 제57주년을 맞이한 '3·15 의거 기념일'은 3·15정신으로 이룩한 국민주권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한민국이라는 행사주제로 마산에 위치한 3·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렸다.

3·15의거 제1주년 추도제

3·15 민주묘지

4. 서해수호의 날

서해수호의 날은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이다. 날짜가 3월 넷째 금요일인 이유는 우리 군의 희생이 가장 많았던 천안함 피격일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서해교전[36]과 천안함 침몰 사건[37], 연평도 사태[38] 등 서해에서 발생한 끔직한 북한 도발을 상기하면서 국민안보의식을 결집하기 위해 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질 목적으로 2016년「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서해수호의 날'을 제정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고 있다.

36)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한국 전쟁의 휴전 이후인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해상에서의 충돌을 말하며, 특히 서해상에서 벌어진 전투를 통틀어 서해교전이라고 한다.
37)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772 천안이 북한의 잠수정(추정)에 의해 피격되어 침몰한 사건이다.
38)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경, 북한이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의 대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한 사건이다.

2017년 제2주년을 맞이한 '서해수호의 날'은 '국민의 비군사적 대비가 북한 도발을 영원히 끊는 길입니다'라는 주제로, 국민의례, 헌화 ·분향, 영상 상영,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서해 도발의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 장병, 북한군 격퇴 유공자, 시민, 학생 등 7천여 명이 참석했다.

서해수호의 날

연평도 포격당시

5.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제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검토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고,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것이다. 기념일은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고 있다.

2017년 제98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선열들이 이룩한 조국독립과 하나되어 지켜나갈 대한민국'이라는 행사주제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임시정부요인 유가족 등을 모시고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렸다.

건국절에 대한 논란은 보수·진보 양측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논쟁거리 중 하나였으며,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행사 전날 대한민국의 건국은 임시정부 수립일이라는 견해로 그 동안의 논란을 종결시키고자 했다.

임시정부 요인들

상해임시정부 복원모습

6. 4·19혁명 기념일

4·19 혁명 정신을 기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 부정선거[39]를 규탄하는 시위를 대대적

39) 1960년 3월 15일 치루어진 부정선거. 한국 헌정사 이래 국회 의결로 정식 무효가 된 유일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로 한국 선거사 사상 최악의 사건이다.

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4·19의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4·19혁명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7년 제57주년을 맞이한 '4·19혁명 기념일'은 '4·19정신으로 이룩한 국민주권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한민국'이라는 행사주제로 4·19혁명 유공자 및 유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립 4·19민주 묘지에서 열렸다.

4 · 19 민주묘지

4 · 19 혁명 모습

7. 5 · 18민주화 운동 기념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은 1980년 5월 18일 부터 27일까지 광주를 중심으로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다. 매년 5월 18일 전국적으로 거행된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7일 자정에 내려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에 따라 투입된 계엄군과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서로 충돌하

면서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광주사태' '광주항쟁'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다가 1988년 초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민주화를 위한 운동의 일환'이라고 의미가 규정되었다. 이후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와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1996년 광주시의회는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것이다. 행사의 주체는 국가보훈처 이다.

2017년 제37주년을 맞이한 '5·18민주화 운동 기념일'은 '5·18정신을 계승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이란 행사주제로 진행되어, 그동안 합창이냐 제창이냐를 두고 보수와 진보간 끊임없이 논쟁거리였던 '임을위한행진곡'을 9년 만에 제창하기도 했다.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탑

5·18 민주화운동 모습

8. 현충일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용사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2017년 제62회를 맞이한 '현충일'은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강한 안보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행사주제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서울현충원 현충문

현충일 추념식 행사

9. 6・10민주항쟁 기념일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다. 6월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6월 민주화운동, 6월 민중항쟁 등으로 불린다.

4·13 호헌 조치[40]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6월 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후 1987년 12월 16일 새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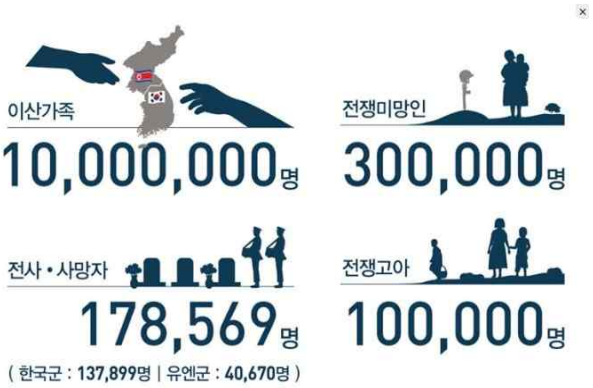
6월 항쟁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 운동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기념일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2017년 제30주년 '6.10 민주항쟁기념일'은 '기억과 다짐'이라는 행사주제로 법정기념일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40) 그 당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거세지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자, 정권 유지에 불안을 느낀 전두환 대통령은 그해 4월 13일 모든 개헌 논의를 금지하고 '현행 헌법을 유지한다.“는 호헌조치를 단행하였다.

10. 6・25전쟁일

6・25전쟁 당시모습



숫자로 보는 6・25전쟁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을 침공하여 발발한 전쟁이다. 유엔군과 중국인민지원군 등이 참전하여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 될 뻔 하였으나,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한국휴전협정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휴전 이후로도 현재까지 양측의 유무형적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공산·반공 양강 진영으로 대립하게 된 세계의 냉전적 갈등이 열전으로 폭발한 대표적 사례로, 냉전인 동시에 실전이었으며, 국부전인 동시에 전면전이라는 복잡한 성격을 가졌다. 이는 국제연합군과 의료진을 비롯해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까지 관여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의 국제전이다.

이에 후세들에게 6.25전쟁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휴전 이후 국방부, 문공부 주관 6.25기념일 행사를 거행해오다가,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2017년 67주년을 맞이한 ‘6.25전쟁 기념일’은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등 각계각층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1. 재향군인의 날

제대군인 주간 영상공모 포스터

세계향군연맹 가입국가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 회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 제정한 ‘재향군인의 날’의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회를 창설하였으며, 1953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로 명명하였다. 1957년 1월 17일 대한참전전우회 등을 통합하여 대한상무회를 창립하였고,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으며,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02년 ‘재향군인의 날’을 재향군인회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제대 장병 보도회의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이 날의 행사는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치러지고 있다.

재향군인의 날 행사에 앞에 국가보훈처에서는 해마다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양질의 일자리제공’이라는 주제로 ‘제대군인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간에 영상 및 문예작품 등을 공모하고 시상식을 운영하여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12. 순국선열의 날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순국순열의 날’의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일컫는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하고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 기념행사는 거행되었다.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행사는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고 있다.

2017년 제78회를 맞이한 ‘순국선열의 날’에는 ‘순국선열 정신 이어받아, 튼튼한 대한민국 꽃피우자’라는 행사주제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임시정부요인 유가족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우리나라의 추모행사는 일본에 의해 국권을 침탈당했던 이유로 애국,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전쟁으로 인한 호국, 그리고 독재 및 군부정권에 항쟁한 민주, 이렇게 세가지 영역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영역이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추모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 영역의 특성이 달라서인지 갈등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지금 세대가 해야 할 몫일 것이다.

또한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이 기념식의 성격에 따라 일원화 할 필요성도 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가 3·1절과 광복절 행사를 주관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국경일이나 법정기념일에 중앙부처의 추모행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각 행사를 치루고 있는데, 지자체의 행사에 있어서는 관이 중심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행사의 참의미를 되새겨볼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VII. 우리나라의 현충시설

현충시설이란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등과 같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분들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 조형물 · 사적지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함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1. 독립운동관련 현충시설

가. 백범김구기념관

기념관 모습

김구 선생 조각상

우리가 독립운동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백범 김구(1876년 ~ 1949년)선생님의 기념관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55번지(임정로 26)에 건립된 박물관이다. 2002년 10월 22일에 기념관을 개관하였으며, 2008년 12월에 백범기념관에서 백범김구기념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기념관의 규모는 건물만 2,300여 평에 이르며, 애국관련 기념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또한 기념관에는 김구선생의 일대기는 물론 각종 근현대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는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등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과 대회의실, 컨벤션홀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곳은 해마다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4·13)이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서대문 형무소는 1907년 대한제국을 점령한 한국통감부가 서울에 세운 형무소이다. 일본제국에 의해 세워졌던 경성감옥을 시초로 하고 있으며, 1923년 서대문 형무소로 개칭되었다. 이후 해방 뒤에도 교도소, 구치소로 활용되다가 1987년 교도소 시설은 경기도 의왕시로 옮기고, 박물관, 문화재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그 건물에 독립 공원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설치되어 있다.

대한제국 말기에 지어져 일제강점기 때의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광복 이후 정치적 격변과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의 고난과 아픔을 간직한 역사의 현장이다. 다른 이름은 서대문 구치소였다. 경성감옥으로 불리기도 한다.

다. 안중근의사기념관

기념관 모습

안중근의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공원에 있는 역사기념관으로서 사단법인 안중근숭모회가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1970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61주년을 기념하여 설립되었다. 2010년 10월 26일 이전에 있었던 한옥 모습의 구관을 철거하고 현재의 자리에 신관을 설립하여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01주년을 기념하여 개장하였다.

본래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남산에 세웠다는 신사인 조선신궁이 있던 자리다. 일제에 의해 무고한 한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했던 굴욕적인 장소로 알려졌다. 1945년 해방 후 일본인들이 조선신궁을 직접 해체 및 철거한 뒤 남은 빈 터에다 일제의 잔재와 굴욕을 씻어내기 위해서 지금의 안중근의사기념관을 설립했다고 전해진다.

라. 독립기념관

기념관 모습

독립기념관 태극기

세종시와 가까운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위치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은 내가 애들을 데리고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하다. 독립기념관의 건립배경은 다음과 같다.

1982년 일본 고교 역사교과서 검정당시 문부성이 한국에 관련된 내용을 일본측에 유리한 형태로 수정하면서 역사왜곡 이슈가 터졌다. 당시 일본에서는 문부성의 일방적인 수정에 항의하는 교과서 집필진의 항의가 있었고, 일본 내 여론도 문부성 비판으로 흘러가면서 한국내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이 사건이 터지자 한국 내 여론은 독립운동과 같은 역사를 보존하고 후대에 알려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고, 500여 억원의 국민성금을 기초로 공사를 시작한 독립기념관은 1987년 8월 15일 개관했다.

이외에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장소에 독립기념관이 존재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의 생가나 활동한 곳을 중심으로 기념관을 만들어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애국관련 기념관들은 생각보다 우리주변 가까이서 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우리는 대게 좋지 않았던 역사에 대해서는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 한다. 그래서 친일이라는 역사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한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나라 역사 중 일부이다. 그러한 잘못된 역사를 거울삼아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세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독일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나치박물관을 통해 후세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친일박물관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2. 국가수호관련 현충시설

가.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

현충시설이라고 하면 제일먼저 떠올리는 그리고 규모가 가장 큰,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이다. 학창시절에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항상 지적했던, 전쟁을 기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 빼곤 규모도 크고 관련 전쟁관련 유물도 가장 많이 전시하고 있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현충시설이다.

전쟁기념관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항쟁과 전쟁에 대한 기록을 모으고 보존하는 곳이다. 전쟁에 대한 교훈을 통해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적 통일을 목적으로 1990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93년 12월 건립하였으며, 1994년 6월 10일 정식 개관하였다.

나.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거제도포로수용소는 한국전쟁 당시 사로잡은 조선인민군과 중공군 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해 1951년 2월에 현재의 거제시 고현동과 수양동을 중심으로 거제도 일대에 설치되어, 1953년 7월까지 운영된 포로수용소이다.

거제도는 육지와 가까워 포로를 수송하기 수월하면서도, 당시에는 육지와의 교통수단이 배 밖에 없어서 포로를 격리 수용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이곳에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었다.

휴전협정으로 폐쇄된 포로수용소는 1983년 12월 잔존유적이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유적공원은 1998년 9월 착공되어 1년 후인 1999년 9월 완공되어 같은해 10월 1차 유적관 개관에 이어 2002년 11월 2차로 유적공원이 개관하였다.

다.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전쟁에 대한 불안감과 동시에 안보에 대한 중요성 또한 잘 알고 있는 동두천시에서 건립한 자유수호 평화박물관은 1997년 1월 착공하여 2002년 5월 개관하였다.

평화박물관의 건립취지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에는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우리 민족의 불굴의 정신과 생명을 아끼지 않는 선열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습니다.

1950년 6월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은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벌어진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지만,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여야 한다는 온 국민의 투철한 애국정신과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유엔의 노력과 참전 유엔군의 값진 희생으로 오늘과 같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25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60여년이 지난 오늘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피와 생명을 바치신 국군과 유엔군의 고귀한 희생과 정신을 소홀하게 생각해 왔으며 또한 계승 하려는 실천과 노력이 미흡 하였고 일부 전후 세대들이 6.25전쟁에 대

해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는 현실을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역사적 교훈이 될 6.25전쟁과 관련한 자료들이 많지 않다는 것과 이 소중한 자료들이 점점 소실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이에 동두천시민은 6.25전쟁의 참상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국군과 유엔군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전 세계에 널리 알려 민족 상잔의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온 국민의 안보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안보의 요충지이며 경기의 소금강인 아름다운 소요산 기슭에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건립하여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고귀한 참 뜻을 영원히 간직하는 한편 후손에게 전하고자 본 박물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건립취지가 다른 모든 현충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라.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기념관 자유수호의 탑

인천 상륙 작전은 1950년 9월 15일 UN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의 주도로 시작된 상륙작전이다. 이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서울 탈환으로 이어져 낙동강 이남까지 퇴각했던 국군이 한국 전쟁 전반의 전세를 뒤집는 계기가 되었다.

기념관은 구국의 계기가 되었던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함과 동시에 참전국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인천시가 시비와 시민성금을 통해서 건립하여 1984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에 맞추어 개관했다.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 정보시스템의 통계를 보면 현충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총 2,055곳이며 독립운동 관련은 901개소, 국가수호 관련은 1,154개소이다.

<시설별 현충시설 현황>

	사당	장소	조형물	생가	기념관	동상	탑	비석	기타	합계
독립운동	40	61	9	44	57	89	97	450	54	901
국가수호	10	18	29	-	21	58	409	591	18	1,154
합계	50	79	38	44	78	147	506	1,041	72	2,055
비율	2%	4%	2%	2%	4%	7%	25%	51%	4%	100%

주제별로 보면 독립운동관련 현충시설에서는 3·1운동과 의병운동이 전체의 51%의 비율을 차지하고, 국가수호관련 현충시설에는 6·25전쟁이 전체의 67%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현충시설 분포를 보면 독립운동관련은 경북, 경남, 전남 순이며, 국가수호관련 현충시설은 경기, 경북, 경남 순이다. 의외인 것은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에 현충시설로 지정된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현충시설물들 대부분은 1990년대나 2000년대에 지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현충시설에 대한 관심이 민주화 이후 커졌기 때문이다.

3. 국립묘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국립묘지의 종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 3·15민주묘지, 국립 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이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각 국립묘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가.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의 설립과정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된 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치로 전사한 장병들은 서울 장충단공원 내 장충사에 안치되었으나 전사자의 수가 많아져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육군묘지의 창설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발발한 뒤 논의는 중단되었고 한국 전쟁의 전사자는 그 영령을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범어사와 금정사에 순국 전몰장병 영안 안치소를 설치하여 봉안하였다.

한국 전쟁이 계속되면서 전사자 수가 늘어 다시 육군묘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1952년 5월 6일, 대한민국 국방부 국장급 회의에서 육군묘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는 육군묘지를 따로 설치하면 관리상의 문제나 영현 관리의 통일성이 제고되지 않는다며 국군 통합묘지의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였고 그 명칭을 국군묘지로 할 것을 결의하였다.

1952년 5월 26일에 국군묘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 국방부 주관으로 편성

된 3군 합동 답사반은 1952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국군묘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 10개 지역을 답사하였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일대를 국군묘지 후보지로 선정하여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재가를 받았다.

1954년 3월 1일 착공하였으며, 1955년 7월 15일에는 국군묘지관리소가 발족하고 1956년 4월 13일 대통령령으로 군묘지령이 제정되어 안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1996년 6월 1일 국립현충원으로 개편되었다가 2006년 1월 오늘과 같은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국립묘지 중 유일하게 국가보훈처가 아닌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이기도 하다.

나. 국립대전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의 설립과정은 다음과 같다. 국립서울현충원은 1955년에 설치되어 20여 년간 일제 강점기 애국지사와 한국 전쟁의 전사자가 안장되었으나 이내 안장능력이 한계에 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군에서는 1974년 12월 16일 중부지역에 새로운 국군묘지를 창설할 것을 결정하였고, 1975년 2월부터 10월까지 제2국립묘지의 후보지를 답사하였다. 이듬해인 1976년 4월 14일에는 충청남도 대덕군 유성읍 갑동리(현재 위치)에 대전국립묘지를 결정하여 1979년 4월 1일에 착공하게 되었으며 1979년 8월 29일에 국립묘지관리소 대전분소를 설치함으로써 대전에도 국립묘지가 설치되었다. 이후 l985년 11월 13일 대전국립묘지가 완공되었으며 1996년 6월 1

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개편하였다. 이후 2006년 01월 30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소속이 변경 되었다.

다. 국립 4·19민주묘지

국립 4·19민주묘지 설립과정은 다음과 같다. 1961년 제2공화국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1960년 발생한 4·19 혁명 기념 공원묘지 조성에 대해 의결하였다. 그해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면서 재건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하여 1962년 기공식을 가졌다. 준공일은 1963년 9월 20일이며 이날 기념탑 제막식을 가졌다.

묘지의 부지는 처음 조성 당시에는 약 3천 평이었으나 1990년대에 김영삼 정부가 성역화 작업을 추진하여 조형물을 추가하고 약 4만 평으로 확장했다. 1995년에는 국가보훈처로 관리가 이전되었다.

목조 건물인 유영봉안소와 묘지, 4·19혁명기념관, 사월학생혁명기념탑, 상징문과 그밖의 상징조형물로 이루어져 있다. 성역공간과 사용공간은 상징문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묘지 가운데에 있는 사월학생혁명기념탑에는 다음과 같은 탑문이 쓰여 있다.

> 1960년 4월 19일 이 나라 젊은이들의 혈관 속에 정의를 위해서는 생명을 능히 던질 수 있는 피의 전통이 용솟음치고 있음을 역사는 증언한다. 부정과 불의에 항쟁한 수만 명 학생대열은 의기의 힘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로 세웠고 민주제단에 피를 뿌린 185위의 젊은 혼들은 거룩한 수호신이 되었다. 해마다 4월이 오면 접동새 울음 속에 그들의 피 묻은 혼의 하소연이 들릴 것이요 해마다 4월이 오면 봄을 선구하는 진달래처럼 민족의 꽃들은 사람들의 가슴마다 되살아 피어나리라.

라. 국립 3·15민주묘지

국립 3·15 묘지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독재 정권의 부정부패와 장기 집권 야욕의 수단으로 자행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분연히 일어나 싸우다 희생된 영령들의 넋이 잠든 곳으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최초의 묘역은 1967년 경상남동 마산시 구암동 야산의 1,200평에 지나지 않았으나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시민 모두 뜻을 모아, 본격적인 성역화사업을 추진하였다.

1998년 3월 총 부지면적 43,390평 규모의 3·15 성역 공원 조성 공사에 착공, 2000년 6월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상징조형물인 3·15 기념탑과 부조벽을 설치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민주열사들의 묘를 이장, 묘역 조성을 완공하였다. 2002년 8월 1일 3·15성역공원에서 국립 3·15 묘지로 승격됐으며, 2003년 3월에는 준공식을 가짐으로서 애국선열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치열했던 민주항쟁의 생생한 모습을 한 눈에 조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국립 5·18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는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에 위치한 국립 묘역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재평가작업 및 5·18 희생자 묘역을 민주성지로 가꾸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광주광역시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성하였다. 1994년 11월 공사를 시작하여 4년만인 1997년 5월 16일 완공하였다.

묘역 안에는 5·18 영령의 묘 680기가 있으며 민주의 문, 유영봉안소, 역사의 문, 숭모루, 추념문 등과 역사공간, 민주광장, 참배광장, 전시공간, 상징조형물, 광주민주화운동추모탑, 7개 역사마당(의병, 동학, 3·1운동, 광주학생운동, 4·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 통일마당), 헌수기념비, 준공기념탑 등이 있다.

바. 국립호국원

국립묘지로서 국립현충원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그 안장 자격이 전투나 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전몰군경, 전상군경, 혹은 무공수훈자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서 활약한 수많은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훈 지원이 미비한 가운데 이들을 위한 묘지 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참전용사묘지가 조성되었고 처음에는 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위임을 받아 운영을 하다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마지막 공간을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06년 1월 30일에 국립묘지로 승격되었고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보훈처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처음에는 참전용사에 한정되었지만 나중에는 국가유공자와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자격이 확대되었다. **경기도 이천, 경상북도 영천, 전라북도 임실, 경상남도 산청 이렇게 4군데에서 개원**하였고, 충청북도 괴산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조성 중이다. 국립제주호국원의 경우 호국원 안장 대상뿐만 아니라 현충원 및 국립민주묘지 안장 대상도 포함된다.

VIII. 정책제언 및 마무리

1. 정책제언

영국의 현충시설은 제1,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것들이며, 기념행사도 마찬가지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저항한 애국투사, 나라를 지킨 호국영웅, 불의에 항거한 민주화 투사 등 다양한 영역의 기념행사 및 현충시설들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양한 보훈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때로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도 하는 등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첫 번째 정책 제언은 각 보훈단체들의 통합단체 설립이다. 처음에는 정부주도로 통합단체를 설립하여, 이후 안정화가 되면 통합단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통합단체라고 해서 모든 단체를 폐지하고 하나의 단체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들의 대표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모으고 갈들을 조정할 수 있는 일종의 갈등 조정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갈등은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더군다나 모든 보훈단체들이 국가를 위해 사회를 위해 희생한 분들인데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은 일반 시민들의 눈에도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단체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법정 기념일 등에 열리는 중앙정부 행사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리는 행사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추모나 기념행사의 참된 의미는 관이 주도하여 질서 있게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 스스로 그날의 행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하는 성찰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다. 처음에 민간으로 이양하면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걱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시민의식 또한 많이 높아졌으므로, 행사에 필요한 예산 등을 적절하게 지원한다면, 민간에서는 훨씬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계층들까지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이나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면 광화문광장처럼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에 현충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원이나 광장을 만들 때 의무적으로 그곳을 대표할 수 있는 동상이나 기념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난다고 당연히 애국심이 높아지고 호국정신이 함양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는 곳에서 할 일이다.

물론 단기간 내에 우리가 영국과 같은 보훈문화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추모나 기념은 일상생활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속담 중에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보상, 감사의 마음, 즉 “따뜻한 보훈”은 좀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2. 마무리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한 윈스턴 처칠의 말을 영국인들은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청교도 사상 등의 영향으로 유흥문화 보다는 가족친화적인 문화가 발달한 영국에서 지역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공원은 어쩌면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자주 찾는 공원이나 그 근처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추모하고 기리는 현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현충시설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점이 아직까지 영국을 강대국으로 이끌고 있는 힘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박우룡, 『영국 '지역 • 사회 • 문화의 이해' 』

강창국, 『영국의 보훈정책 분석 』

하태현, 『영국의 보훈제도 』

국가보훈처 부처 맞춤형 국외훈련, 『영연방 국립묘지 관리프로그램 연구 』

영국 정부 : https://www.gov.uk

영국통계청 : www.ons.gov.uk

구글 : www.google.co.uk

위키백과 : ko.wikipedia.org

네이버 지식백과 : www.naver.com

영국 재향군인회 : http://www.britishlegion.org.uk

영국 군인가족부조회 : https://www.ssafa.org.uk

영국 지체절단상이군인회 : https://blesma.org

대영전쟁미망인회 : https://www.warwidows.org.uk/

영국 물망회 : http://www.nfassociation.org/

제대군인 정신건강 자선회 : http://www.combatstress.org.uk

육군부조기금 : https://www.soldierscharity.org

왕립 영국 공군회 : https://www.rafa.org.uk/

왕립 영국 해군회 : http://royalalfredseafarers.co.uk/

영국한국참전용사협회 : http://www.bkva.co.uk/

영국 제국 전쟁박물관 : http://www.iwm.org.uk

전영추모수목원 : http://www.thenma.org.uk/

영연방 전쟁묘지 위원회 : https://www.cwgc.org

국가기록원 : http://theme.archives.go.kr

백범김구기념관 : http://www.kimkoomuseum.org/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 http://www.sscmc.or.kr

안중근의사 기념관 : http://ahnjunggeun.or.kr/

독립기념관 : http://www.i815.or.kr

전쟁기념관 : https://www.warmemo.or.kr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 http://www.pow.or.kr

자유수호평화박물관 : http://www.ddc21.net

인천상륙작전기념관 : http://www.landing915.com/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정보서비스 : http://mfis.mpva.go.kr